

# KLIPS 주요 고용 지표의 신뢰성 검토

## - 청년층 취업자 식별을 중심으로 -

이 상 호\*

### <요 약 문>

이 연구는 노동패널자료의 핵심적인 고용지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LIPS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약 3-4%p 낮았는데, 주된 원인은 청년층 취업자가 과소추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과소추정된 원인을 표집오차와 비표집오차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집과정이나 가중치 부여과정상의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대로 비표집오차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정에서 청년층 재학생의 낮은 고용률이 결정적인 문제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층 재학생의 낮은 응답률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취업에서 제외된 것 등에 기인하기 보다는 청년층 응답자의 패널조사에 대한 태도, 즉 패널 컨디션닝(Panel Conditioning)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체계의 변화, 미취업자의 활동상황과 관련된 설문 개선, 추가적인 신뢰성 검증연구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 패널조사, 청년층, 고용, 비표본오차, 자료 신뢰성

## 1. 머리말

### ○ 정책과 실증자료의 관계

- 정책이 반드시 실증적 근거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 만들어진 실증적 근거들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설계와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정책이 시장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고자 더욱 잘 만들어진 실증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됨

---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shlee@keis.or.kr)

- 횡단면 자료는 ‘스냅사진’과 같이 순간의 현상을 표현하는데 장점을 갖고, 시계열 자료/반복횡단자료는 거시적 추세변화를 이해하는데 장점을 갖지만, 미시적 수준에서의 인구와 고용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부적합(Davis, 2004)
  - PSID(1968), SOEP(1984), BHPS(1991) 등 가구패널조사의 등장은 이러한 정책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
- 패널자료의 장점(Duncan, 1987; Burkhauser et al. 2001; Wijesekere, 2009)
- 패널조사는 동일한 개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점간의 상태변화와 이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횡단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통해서 전혀 다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
  - 횡단면 자료와는 달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음
  -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관측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있음
  - 차수간 폴링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소집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량을 추출할 수 있음
  - 유사한 설계를 통해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속에서 유사한 사회정책의 효과 검증 가능함
  - 연령효과, 코호트효과, 세대간 효과 등에 대한 검증 가능
- 이런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가구 혹은 개인 단위의 패널조사가 실시
- 패널조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의 정책적 활용도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물론 이런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지만,
  - 패널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오랜 자료생산 및 처리 과정에 기인한 시의성 저하 문제, 자료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활용도 자체가 낮은 점 등의 개선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임
- KLIPS는 ‘09년 표본추가를 실시하여 전국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재설계
- 1998년 표본이 제주도 제외 도시가구를 표집,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시 표본에 대한 대표성 뿐만 아니라 전국대표성 측면에서도 모호한 상황
  - 특히 전국대표성 입장에서 볼 때, 동부 표본에서 단독주택과 1-2인 가구가 과소

표집, 읍면부에서는 기존표본의 비중이 적은 문제 발생하여 이를 보완(김재광, 2009 참고)

- 조사 체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12차조사) 이후 자료의 경우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신뢰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임
  
- KLIPS는 여러 차례 패널 품질개선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축적
  - CAPI 실험연구, 표본이탈, 임금 및 소득의 히핑, 기간 변수의 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최효미 외, 2012; 윤윤규 외, 2012; 홍민기 외, 2014a; 2014b)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상태’와 관련된 신뢰성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KLIPS 고용지표(주로 고용률 및 실업률)와 경황의 비교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파악
  - 다만 유의할 점은 이들 지표의 분석을 통해 수치 그 자체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 지표 차이를 가져오는 노동력 상태/고용형태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음

## 2.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 KLIPS의 고용률은 경황보다 09표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4%p 낮은 수준임.
  - 표본추가 이전(11차조사까지)에는 고용률 격차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지는데, 고용률이 높은 비도시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표본임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수준임.
  - 횡단면보다는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고용률이 더 낮으며, 큰폭은 아니지만 횡단-종단간 고용률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실업률의 경우, '09표본 최초표집 시점에는 경황보다 약 1%p 가량 높았으나 현재는 오히려 낮은 상황임. '09표본의 경우에도 KLIPS의 실업률은 경황의 약 2배 수준을 기록하였음. 노동패널의 경우 경기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경황조사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는 편임.

<표 1> 전체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경활(A)	노동패널(B)				(B)-(A)			
		98횡단	98종단	09횡단	09종단	98횡단	98종단	09횡단	09종단
1998년 ( 1차)	56.4	48.3	48.3			-8.1	-8.1		
1999년 ( 2차)	56.7	52.0	52.0			-4.7	-4.7		
2000년 ( 3차)	58.5	51.7	51.3			-6.8	-7.2		
2001년 ( 4차)	59.0	52.4	52.2			-6.6	-6.8		
2002년 ( 5차)	60.0	53.9	53.8			-6.1	-6.2		
2003년 ( 6차)	59.3	53.4	53.2			-5.9	-6.1		
2004년 ( 7차)	59.8	53.3	53.2			-6.5	-6.6		
2005년 ( 8차)	59.7	52.7	52.7			-7.0	-7.0		
2006년 ( 9차)	59.7	52.8	52.9			-6.9	-6.8		
2007년 (10차)	59.8	52.8	52.7			-7.0	-7.1		
2008년 (11차)	59.5	53.0	52.8			-6.5	-6.7		
2009년 (12차)	58.6	53.1	52.7	54.1	54.1	-5.5	-5.9	-4.5	-4.5
2010년 (13차)	58.7	53.8	53.5	55.8	55.3	-4.9	-5.2	-2.9	-3.4
2011년 (14차)	59.1	54.8	54.0	56.8	56.0	-4.3	-5.1	-2.3	-3.1
2012년 (15차)	59.4	54.5	53.4	56.9	56.1	-4.9	-6.0	-2.5	-3.3
2013년 (16차)	59.5	55.0	54.0	56.9	56.0	-4.5	-5.5	-2.6	-3.5
2014년 (17차)	60.2	56.2	54.5	57.5	56.4	-4.0	-5.7	-2.7	-3.8
<b>실업률(지난 1주 기준)</b>									
1998년 ( 1차)	7.0	13.6	13.6			6.6	6.6		
1999년 ( 2차)	6.3	6.7	6.7			0.4	0.4		
2000년 ( 3차)	4.1	4.3	4.4			0.2	0.3		
2001년 ( 4차)	3.8	3.8	3.9			0.0	0.1		
2002년 ( 5차)	3.1	3.3	3.6			0.2	0.5		
2003년 ( 6차)	3.4	4.0	4.3			0.6	0.9		
2004년 ( 7차)	3.5	4.4	4.7			0.9	1.2		
2005년 ( 8차)	3.5	4.6	4.9			1.1	1.4		
2006년 ( 9차)	3.3	4.4	4.6			1.1	1.3		
2007년 (10차)	3.0	3.6	4.0			0.6	1.0		
2008년 (11차)	3.0	2.7	3.0			-0.3	0.0		
2009년 (12차)	3.4	3.8	4.1	4.1	4.1	0.4	0.7	0.7	0.7
2010년 (13차)	3.4	2.4	2.5	2.4	2.4	-1.0	-0.9	-1.0	-1.0
2011년 (14차)	3.0	2.2	2.4	2.5	2.6	-0.8	-0.6	-0.5	-0.4
2012년 (15차)	2.8	2.5	2.6	2.7	2.8	-0.3	-0.2	-0.1	0.0
2013년 (16차)	2.8	2.4	2.8	2.2	2.4	-0.4	0.0	-0.6	-0.4
2014년 (17차)	3.2	2.6	2.8	2.3	2.3	-0.6	-0.4	-0.9	-0.9
<b>실업률(지난 4주 기준)</b>									
1998년 ( 1차)	-	16.3	16.3						
1999년 ( 2차)	-	7.9	8.0						
2000년 ( 3차)	4.4	5.1	5.3			0.7	0.9		
2001년 ( 4차)	4.0	4.6	4.7			0.6	0.7		
2002년 ( 5차)	3.3	3.8	4.1			0.5	0.8		
2003년 ( 6차)	3.6	4.6	5.0			1.0	1.4		
2004년 ( 7차)	3.7	5.0	5.4			1.3	1.7		
2005년 ( 8차)	3.7	5.5	5.7			1.8	2.0		
2006년 ( 9차)	3.5	5.1	5.3			1.6	1.8		
2007년 (10차)	3.2	4.3	4.8			1.1	1.6		
2008년 (11차)	3.2	3.1	3.5			-0.1	0.3		
2009년 (12차)	3.6	4.3	4.6	4.5	4.5	0.7	1.0	0.9	0.9
2010년 (13차)	3.7	2.8	3.1	2.7	2.7	-0.9	-0.6	-1.0	-1.0
2011년 (14차)	3.4	2.7	2.9	3.0	3.1	-0.7	-0.5	-0.4	-0.3
2012년 (15차)	3.2	3.1	3.2	3.2	3.3	-0.1	0.0	0.0	0.1
2013년 (16차)	3.1	2.8	3.2	2.6	2.8	-0.3	0.1	-0.5	-0.3
2014년 (17차)	3.5	3.0	3.1	2.7	2.7	-0.5	-0.4	-0.8	-0.8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KOSIS 기준 지난 4주 기준 실업률은 2000년부터 공표됨

<표 2> 2014년(17차) 성별·연령별 실업률 및 고용률 비교

(단위 : %)

경제활동인구 조사(A)						
	실업률			고용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3.5	3.6	3.5	60.2	71.4	49.5
15 - 19세	9.2	10.2	8.4	7.7	6.8	8.6
20 - 29세	9.0	10.5	7.6	57.4	55.8	59.0
30 - 39세	3.1	2.9	3.5	73.9	90.9	56.3
40 - 49세	2.2	2.1	2.4	79.1	92.7	65.1
50 - 59세	2.2	2.3	2.2	74.2	87.5	60.9
60세이상	2.3	2.8	1.6	39.0	51.4	29.3

노동패널-09횡단 가중치(B)							B-A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차			고용률 차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2.7	2.5	2.8	57.5	69.7	45.4	-0.8	-1.1	-0.7	-2.7	-1.7	-4.1
15 - 19세	1.3	0.0	2.2	2.8	2.3	3.4	<b>-7.9</b>	<b>-10.2</b>	<b>-6.2</b>	<b>-4.9</b>	<b>-4.5</b>	<b>-5.2</b>
20 - 29세	8.5	8.6	8.4	46.9	46.7	47.1	-0.5	-1.9	0.8	<b>-10.5</b>	<b>-9.1</b>	<b>-11.9</b>
30 - 39세	2.8	2.6	3.3	72.7	92.9	51.4	-0.3	-0.3	-0.2	-1.2	2.0	-4.9
40 - 49세	1.7	1.7	1.8	78.0	93.4	62.2	-0.5	-0.4	-0.6	-1.1	0.7	-2.9
50 - 59세	0.8	1.0	0.6	75.8	90.6	60.9	-1.4	-1.3	-1.6	1.6	3.1	0.0
60세이상	1.5	1.5	1.5	36.5	49.4	26.4	-0.8	-1.3	-0.1	-2.5	-2.0	-2.9

노동패널-09종단 가중치(C)							C-A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차			고용률 차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2.7	2.6	2.9	56.4	68.3	44.5	-0.8	-1.0	-0.6	-3.8	-3.1	-5.0
15 - 19세	0.8	0.0	1.4	2.7	2.1	3.4	<b>-8.4</b>	<b>-10.2</b>	<b>-7.0</b>	<b>-5.0</b>	<b>-4.7</b>	<b>-5.2</b>
20 - 29세	8.6	8.2	9.0	43.3	43.2	43.4	-0.4	-2.3	1.4	<b>-14.1</b>	<b>-12.6</b>	<b>-15.6</b>
30 - 39세	3.0	2.7	3.4	72.2	91.9	51.5	-0.1	-0.2	-0.1	-1.7	1.0	-4.8
40 - 49세	1.9	1.9	1.8	77.3	92.4	61.6	-0.3	-0.2	-0.6	-1.8	-0.3	-3.5
50 - 59세	0.9	1.0	0.6	75.0	89.8	60.3	-1.3	-1.3	-1.6	0.8	2.3	-0.6
60세이상	1.6	1.7	1.3	35.6	48.0	26.1	-0.7	-1.1	-0.3	-3.4	-3.4	-3.2

○ 고용률 및 실업률 격차의 발생원인은 청년층에 기인함

-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표본 유형에 관계없이 경활보다 9-10%p 가량 낮음.
- 특히 '09횡단가중치(B)보다 '09종단가중치(C)를 사용했을 경우 약 14%p정도 더 낮으며, 남성보다 여성 고용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노동패널 조사의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취업자 + 실업자)를 상당한 규모로 과소추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경활조사의 고용률 및 실업률 역시 모집단이 아닌 표본조사이므로 '과소추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활조사자료는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산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대표통계이므로 이하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것임

<표 3>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경황(A)	노동패널(B)				(B)-(A)			
		98횡단	98종단	09횡단	09종단	98횡단	98종단	09횡단	09종단
1998년 ( 1차)	40.6	29.9	29.9			-10.7	-10.7		
1999년 ( 2차)	40.9	33.3	33.6			-7.6	-7.3		
2000년 ( 3차)	43.4	33.6	33.6			-9.8	-9.8		
2001년 ( 4차)	44.0	34.4	35.2			-9.6	-8.8		
2002년 ( 5차)	45.1	35.3	36.0			-9.8	-9.1		
2003년 ( 6차)	44.4	36.5	37.2			-7.9	-7.2		
2004년 ( 7차)	45.1	36.1	36.9			-9.0	-8.2		
2005년 ( 8차)	44.9	35.1	35.6			-9.8	-9.3		
2006년 ( 9차)	43.4	34.9	35.1			-8.5	-8.3		
2007년 (10차)	42.6	33.2	33.5			-9.4	-9.1		
2008년 (11차)	41.6	33.0	33.3			-8.6	-8.3		
2009년 (12차)	40.5	32.7	33.2	32.7	32.7	-7.8	-7.3	-7.8	-7.8
2010년 (13차)	40.3	31.7	32.1	34.0	33.2	-8.6	-8.2	-6.3	-7.1
2011년 (14차)	40.5	31.4	31.3	35.5	33.9	-9.1	-9.2	-5.0	-6.6
2012년 (15차)	40.4	30.7	30.8	33.3	31.9	-9.7	-9.6	-7.1	-8.5
2013년 (16차)	39.7	30.4	31.3	31.5	29.6	-9.3	-8.4	-8.2	-10.1
2014년 (17차)	40.7	32.0	31.9	32.6	30.1	-8.7	-8.8	-8.1	-10.6
<b>실업률(지난 1주 기준)</b>									
1998년 ( 1차)	12.2	23.3	23.3			11.1	11.1		
1999년 ( 2차)	10.9	12.4	12.5			1.5	1.6		
2000년 ( 3차)	7.6	8.1	8.2			0.5	0.6		
2001년 ( 4차)	7.5	7.6	7.8			0.1	0.3		
2002년 ( 5차)	6.6	8.1	8.7			1.5	2.1		
2003년 ( 6차)	7.7	9.2	9.6			1.5	1.9		
2004년 ( 7차)	7.9	10.2	10.4			2.3	2.5		
2005년 ( 8차)	7.6	9.8	9.6			2.2	2.0		
2006년 ( 9차)	7.4	9.9	10.0			2.5	2.6		
2007년 (10차)	6.7	8.2	8.5			1.5	1.8		
2008년 (11차)	6.8	6.5	6.9			-0.3	0.1		
2009년 (12차)	7.6	9.7	9.4	10.6	10.6	2.1	1.8	3.0	3.0
2010년 (13차)	7.3	6.9	6.8	6.7	7.0	-0.4	-0.5	-0.6	-0.3
2011년 (14차)	6.9	5.8	5.7	6.0	6.2	-1.1	-1.2	-0.9	-0.7
2012년 (15차)	6.7	5.9	5.8	6.5	6.5	-0.8	-0.9	-0.2	-0.2
2013년 (16차)	7.2	7.7	9.1	6.8	8.1	0.5	1.9	-0.4	0.9
2014년 (17차)	8.0	9.2	8.4	6.8	7.1	1.2	0.4	-1.2	-0.9
<b>실업률(지난 4주 기준)</b>									
1998년 ( 1차)		28.5	28.5						
1999년 ( 2차)		15.1	15.1						
2000년 ( 3차)	7.5	9.9	10.0			2.4	2.5		
2001년 ( 4차)	7.3	9.9	9.9			2.6	2.6		
2002년 ( 5차)	6.6	9.2	9.7			2.6	3.1		
2003년 ( 6차)	7.7	10.4	10.8			2.7	3.1		
2004년 ( 7차)	7.9	11.3	11.6			3.4	3.7		
2005년 ( 8차)	7.7	11.2	10.8			3.5	3.1		
2006년 ( 9차)	7.7	11.2	11.4			3.5	3.7		
2007년 (10차)	7.1	10.0	10.5			2.9	3.4		
2008년 (11차)	7.0	7.4	7.9			0.4	0.9		
2009년 (12차)	7.9	10.2	9.9	11.1	11.1	2.3	2.0	3.2	3.2
2010년 (13차)	7.8	7.6	7.5	7.5	7.7	-0.2	-0.3	-0.3	-0.1
2011년 (14차)	7.4	7.9	8.2	7.6	7.9	0.5	0.8	0.2	0.5
2012년 (15차)	7.5	6.9	6.7	7.3	7.4	-0.6	-0.8	-0.2	-0.1
2013년 (16차)	7.9	8.9	10.2	8.1	9.6	1.0	2.3	0.2	1.7
2014년 (17차)	9.0	10.5	9.1	8.3	8.4	1.5	0.1	-0.7	-0.6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KOSIS 기준 지난 4주 기준 실업률은 2000년부터 공표됨

### 3.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원인

- 지금부터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왜 낮은지 원인을 파악
  - 실업률의 경우, 표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있는 원인분석을 하기가 어려움(예컨대 17차 조사의 경우 KLIPS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52명에 불과함)
  - KLIPS와 경활조사간 고용률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 즉 취업자 vs. 미취업자 (혹은 비경활인구)간의 식별과정의 차이 분석에 주력함

$$\text{고용률} = \text{취업자} / \text{생산가능인구} * 100$$

- 고용률 과소추정 문제에 대한 검토가능한 요인들
  - ① 표집오차
  - ② 개인응답률
  - ③ 조사체계
  - ④ 패널컨디션

<표 4> 고용률 과소추정의 잠재적 요인들

		문제점	해결방안
1. 표집 오차		가구표집과정의 오류로 인한 가구원 자체의 인구대표성 문제	1차 표집 시점 가구 가중치 재조정 필요
비 표 집 오 차	2. 응답률	응답대상 가구원의 개인조사 응답률	응답률 반영 가중치 재조정 및 표본이탈 관리 필요
	3. 조사체계	취업자 판별과 관련된 설문 문항, 질문 방식	잘못된 정의, 스킵 오류 등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일 경우, 전략적 선택 및 조사관리를 통해 해결
		취업자 정의 및 지침상의 문제	
		조사 시기, 조사기간 등	
4. 패널 컨디션	응답자 및 면접원의 조사 태도 상의 문제	조사 관리	

### 3.1 표집오차와 가중치

-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의 상대비
  - 98표본의 경우 제주도 제외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표본 설계 실시(김재광, 2009)
  - 09표본, 12차조사(즉 통합표본의 1차년도 조사)는 전국 대표성 확보하도록 표본 재설계 및 가중치 부여
  - 13차조사(통합표본의 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표본/신규 표본 가구원의 진입 및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되, 인구추계조사를 이용하여 15세 이상 개인에 대한 연령집단별(10세별) 스케일 조정 실시(김영원 외, 2013 참조)
  - 즉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가중치 부여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통계청 가구추계자료와 미미한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통계청 가구추계와 큰 차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예컨대 2010년의 경우 노동패널 가중치는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 실측치(인구추계가 아니라)에 총인구규모 및 인구집단별 규모를 맞추어서 스케일 조정 실시
  -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고용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규모에 비례하도록 취업자규모가 도출되어야 함
  - 아래표와 같이 경활수준의 고용률이 달성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825천명(12차 기준)의 취업자가 증가해야 하며,
  - 노동패널 청년층 1인당 평균가중치가 35백명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응답인원 기준으로 청년층 2,977명 중 233명의 취업자가 추가적으로 파악되어야 함

<표 5> 경활수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KLIPS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명)

	생산가능인구수			취업자수			경활수준의고 용률을달성하 는데필요한취 업자수	차이	청년층 1인당 평균가중치 (천명)	추가적으 로파악되 어야할취 업자수 (명)	노동패널 청년층수 (명)
	노동패 널	경활	차이	노동패 널	경활	차이					
12차	10,560	9,780	780	3,452	3,957	-505	4,277	-825	3.5	233	2977
13차	10,028	9,706	322	3,406	3,914	-508	4,041	-635	3.8	166	2716
14차	10,382	9,589	793	3,680	3,879	-199	4,205	-525	4.2	125	2546
15차	10,240	9,517	723	3,413	3,843	-430	4,137	-724	4.4	166	2448
16차	10,119	9,548	571	3,184	3,793	-609	4,017	-833	4.5	185	2342
17차	10,038	9,502	536	3,268	3,869	-601	4,085	-817	5.7	143	1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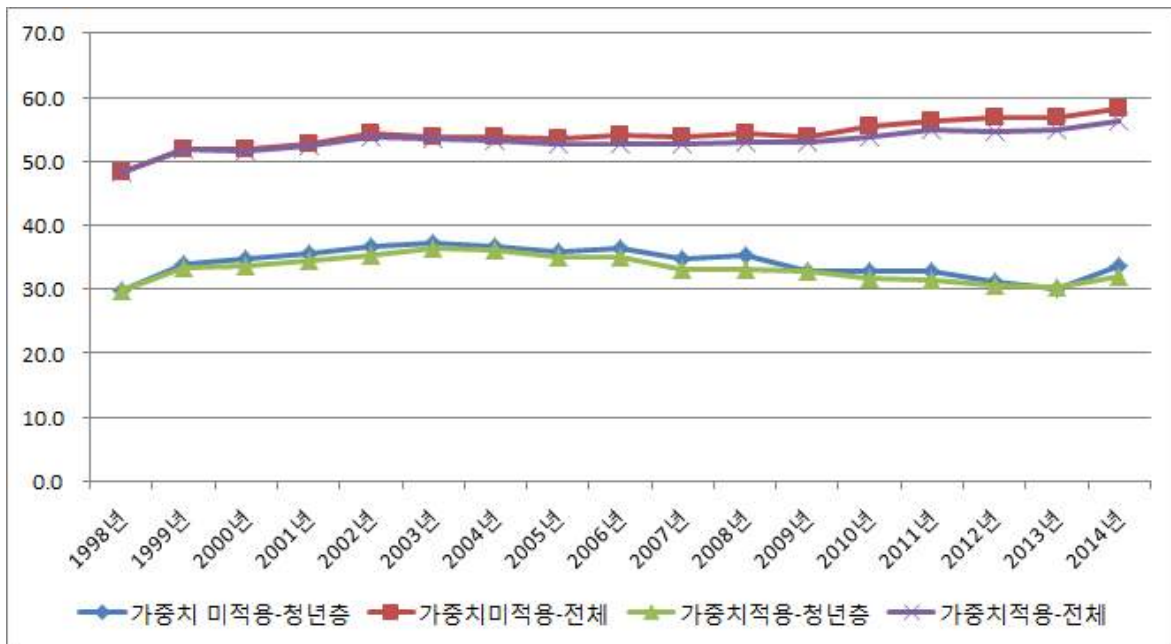


○ 가중치 부여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규모 추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여 취업자 과소추정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
- 노동패널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vs. 부여하지 않은 경우, 양자간의 차이가 1%미만임
- 가중치에 의한 고용률 과소추정 가능성은 기각

[그림 1] 가중치 적용여부에 따른 청년층 고용률 변화

(단위 : %)



### 3.2 개인 응답률

○ 청년층 취업자의 체계적인 단위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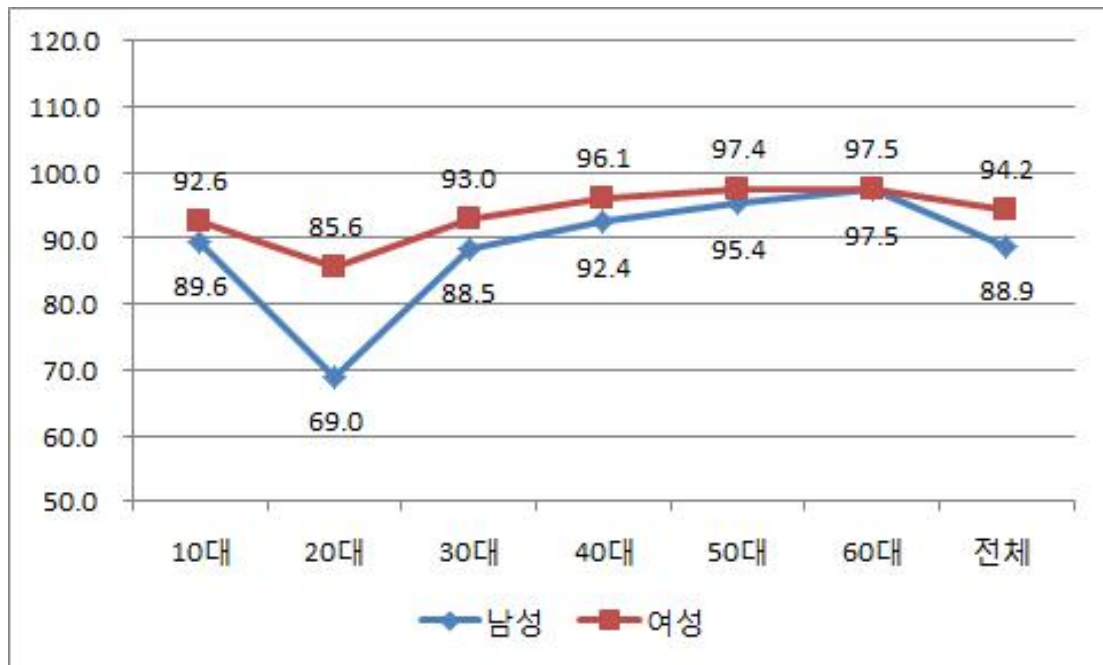
-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청년층 가구원 중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체계적인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 발생했을 가능성
- 무응답이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해 비례적으로 발생했다면 문제가 없음. 즉 청년층의 무응답이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면 가중치 부여과정에서 연령집단별 스케일조정을 통해 보정되지만,
- 청년층 중 미취업자에 비해서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무응답이 더 높다면 고용률에 과소추정의 원인이 될 것임

○ 청년층의 개인 응답률

- KLIPS 조사과정은 크게 2단계로 실시됨 ① 가구내 대표 1인이 가구용 설문지 조사진행 -> ② 15세 이상 가구원 각각 개인 설문지 조사
- 가구원 중 청년층들은 입시, 통학, 늦은 귀가, 개인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개인 설문지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을 수 있음
- 설문응답에 대한 보상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층의 경우 조사응답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비용(시간과 노력)이 클 수 있음
- 조사대상 가구원 중 개인설문지 응답률을 살펴보면, 20대의 응답률은 76.8%로 전체 응답률 91.6%에 비해 14.8%p 낮으며, 특히 청년층 중 여성(85.6%)보다는 남성(69.0%)의 개인응답률이 낮음.

[그림 2] 노동패널 12차 조사의 연령집단별 응답률

(단위 : %)



○ 동거유형과 응답률의 관계

- KLIPS 가구자료에는 가구원 각각에 대해 기본적인 인적정보(성별, 학력, 연령) 뿐만 아니라 동거 여부, 비동거 시 비동거 사유를 파악하고 있음
- 가구원 동거여부는 응답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비동거 가구원의 경우 원거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조사원이 접촉해야 하며, 조사원-응답자간의

신뢰관계를 통한 설득이 더욱 어려움(KLIPS는 문항 분량 및 내용상 전화조사나 대리조사 및 전화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또한 비동거 가구원에 대한 연락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적(locating) 및 접촉(contact) 과정이 더욱 어려움.

○ 동거 및 재학여부에 따른 응답 여부

- 청년층 중 동거 가구원은 개인응답률이 90.8%지만, 비동거 가구원인 경우 개인 응답률이 29.6%에 그침.
- 만일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비동거 가구원 중 취업자가 체계적으로 많다면 응답률에서 고용률 저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비동거-무응답자의 학교 재학 여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즉 비동거-무응답자의 비재학생 비중이 동거-무응답자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취업자가 더 많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
-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청년층 무응답자 중 [동거-비재학자 비중]은 68.2%로 [비동거-비재학자 비중] 67.9%와 거의 동일함

<표 6> 청년층 가구원의 응답여부 및 유형

(단위 : 명, %)

	청년층 가구원의 응답여부				
	합계	응답	무응답	무응답자의 재학형태	
				비재학	재학
동거	3,98 (100.0)	2812 (90.8)	286 (9.2)[100.0]	195 [68.2]	91 [31.8]
비동거	557 (100.0)	165 (29.6)	392 (70.4)[100.0]	266 [67.9]	126 [32.1]
합계	3,655	2,977	678	461	217

○ 청년층 비동거-무응답자의 비동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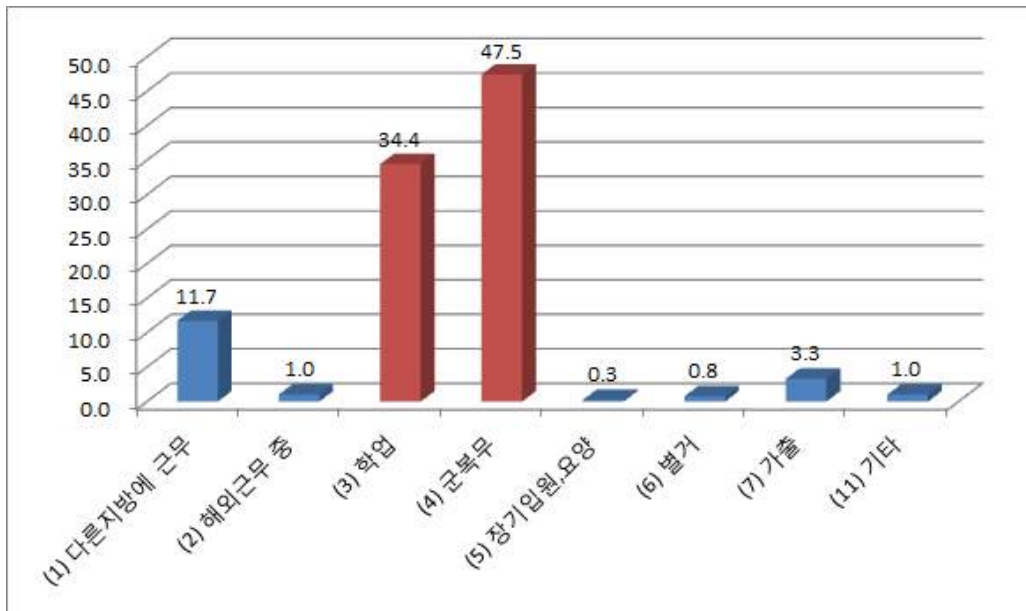
- 비동거-무응답자의 비동거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입대 (47.5%)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34.4%)임.
- 그 외 취업과 관련된 요인(타지방 근무)은 11.7%에 그침
- 앞서 청년층 남성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가 군입대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군입대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되며, 학업때문에 비동거-무응답하는 청년층과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층의 응답률이 모두 증가하더라도 분모와 분자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고용률 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 앞서 <표 2>에서 KLIPS와 경찰조사간 여성 청년층 고용률 격차가 남성보다 더욱 컸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군입대 요인은 취업자 과소추정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그림 3] 노동패널 12차 조사의 연령집단별 응답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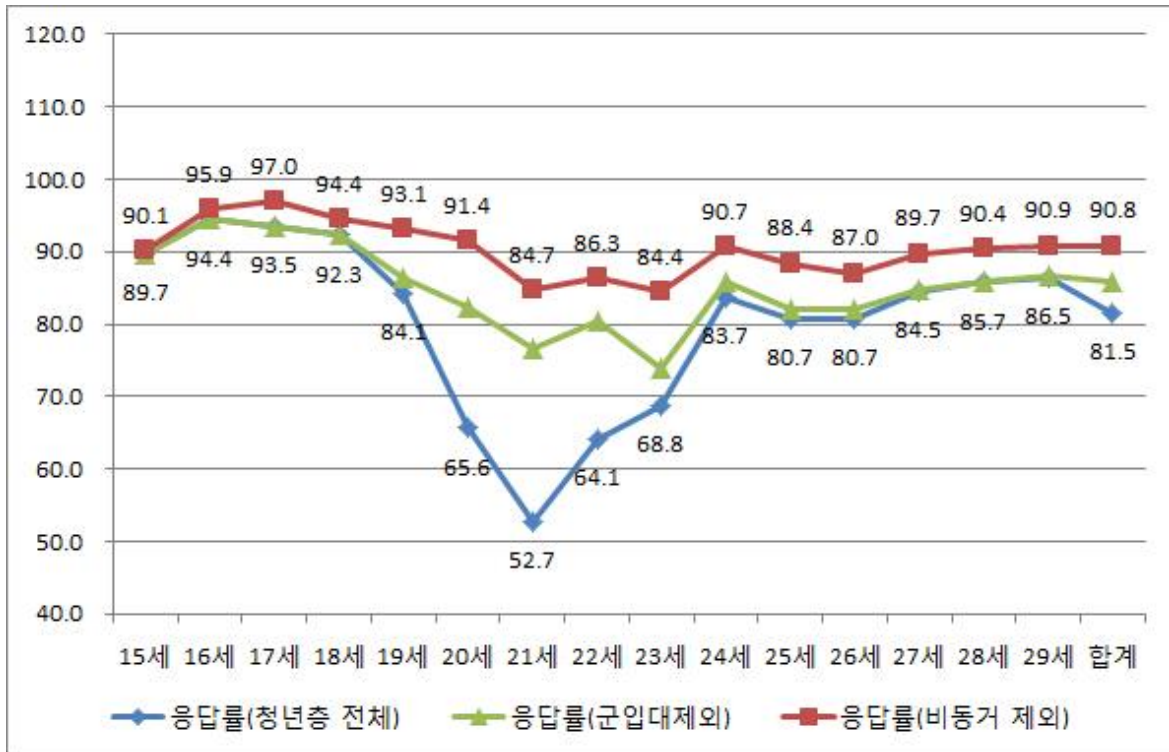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개인응답률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은 필요
  - 고용률 지표의 신뢰성 검토차원과는 별개로 KLIPS의 표본이탈 억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KLIPS 표본이탈 억제 정책은 가구, 특히 원표본가구 중심의 표본유지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사성공률을 나타내는 제1지표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사용하고 있음
  - 청년층의 경우 혼인, 출산, 취업, 양육 문제 등으로 분가 확률이 높고, 조사추적 문제로 표본이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하의 노력을 투여할 유인이 존재
  - 여기서 군입대를 제외할 경우 청년층 응답률은 85.8%까지 증가하며, 비동거 전체를 제외할 경우 청년층 응답률은 90.8%까지 증가함
  - 즉 청년층의 낮은 개인응답률은 주로 남성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심

각한 수준으로 보기에 는 어려우나, 비동거 가구원에 대한 응답률 제고 노력은 별도로 필요함

- 또한 비동거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는 2-3%p 정도 응답률이 낮으므로, 청년층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비동거 제외시 개인 응답률(12차조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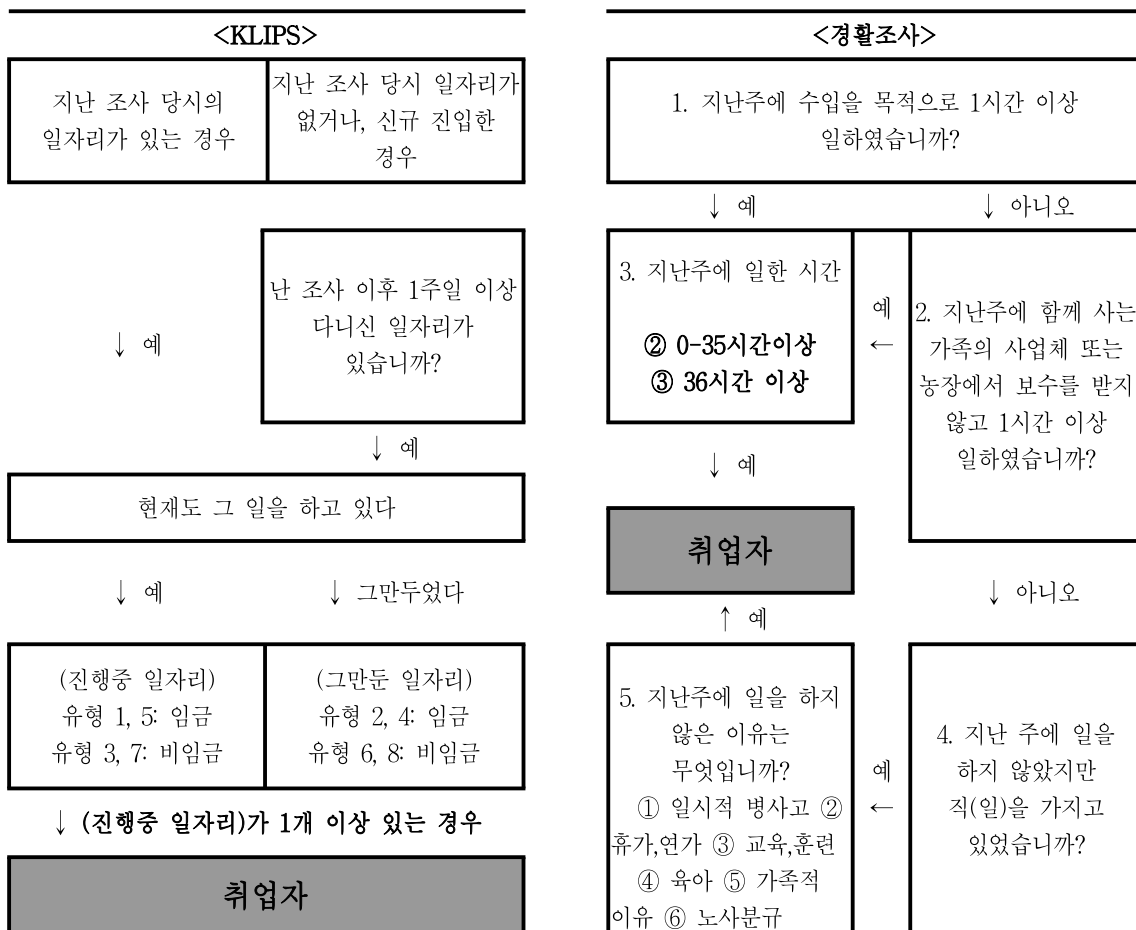
### 3.3 조사 체계의 차이

#### ○ 취업자 판별구조의 문제

- 황수경(2010)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취업여부 및 구직활동과 관련된 질문에서 비논리적인 응답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문항 구성의 순서에 따라서도 다른 응답이 발생함
- 또한 동일한 설문이라 하더라도 개념/용어에 대한 정의의 차이, 면접원과 응답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조사 지침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의 문항에서도 다른 응답이 가능함(이상호, 2002)
-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지난 1주간의 경제활동'을 토대로 취업여부를 판별하는데

- 비해, KLIPS의 경우 취업자 판별 기준에 있어서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보유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와 <유형 설문> 식별과정을 통해 취업자를 선판별한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과 과정을 거쳐 실업자를 판별하는 방식임
- 다만 KLIPS에서도 취업자개인용 설문, 미취업자개인용 설문 등을 통해 지난 1주간의 활동상황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구조의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형>판별과의 차이는 연간 0.5% 이내(약 20명)에서 발생함1).
  -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발령대기 및 일시 휴직에 대해 KLIPS는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임
  - 만일 조사체계상의 차이가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를 가져오더라도 이는 절편상의 차이, 즉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청년층의 취업과는 관련성이 떨어짐

[그림 5]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판별 설문구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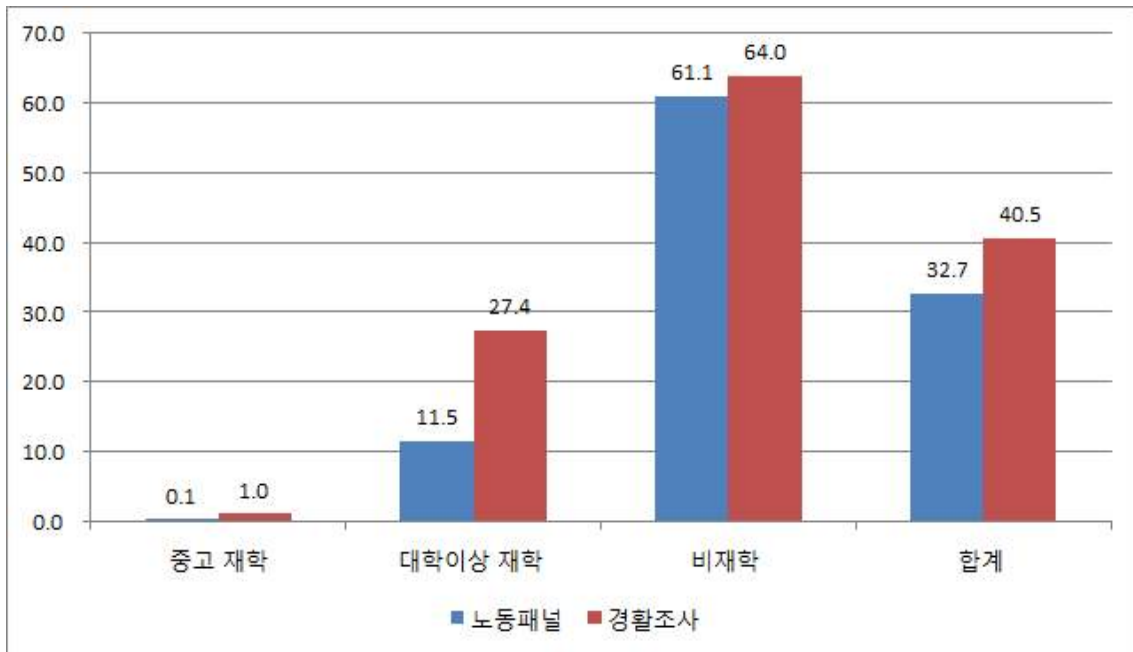
1) 다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러한 분류차이는 3% 정도로 다소 증가함.

○ 재학생 취업자의 비중

- 그런데 <부표 6>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KLIPS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 중 통학자 및 쉬었음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찰조사의 청년층 중 재학생 비중(2009.8월 기준)은 46.0%, KLIPS(12차 조사)의 재학생 비중은 50.3%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재학생의 구성차이에 기인한 효과는 약 25천명 정도로 <표 4>에서 제시한 취업자 수 차이의 20% 내외만을 설명함
- 오히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재학생 중 취업자 수에 있어서 두 조사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임
- 아래 그림과 같이 비재학생의 고용률 격차는 3%p 이내로 다른 연령층에서 아 타나는 두 조사간 고용률 격차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학이상 재학자(두 조사 모두 청년층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의 고용률 격차는 16%p 정도 차이발생

[그림 6] 학교 재학 여부별 고용률 격차(12차조사)

(단위 : %)



○ 재학생의 낮은 고용률은 조사기간의 효과인가?

- 재학생의 낮은 고용률은 KLIPS의 조사 시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방학중에는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등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음
-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특정월에 체계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높거나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조사에서도 월별 고용률 변동은 2%p 내외수준임

<표 7> KLIPS의 월별 청년층 조사자 수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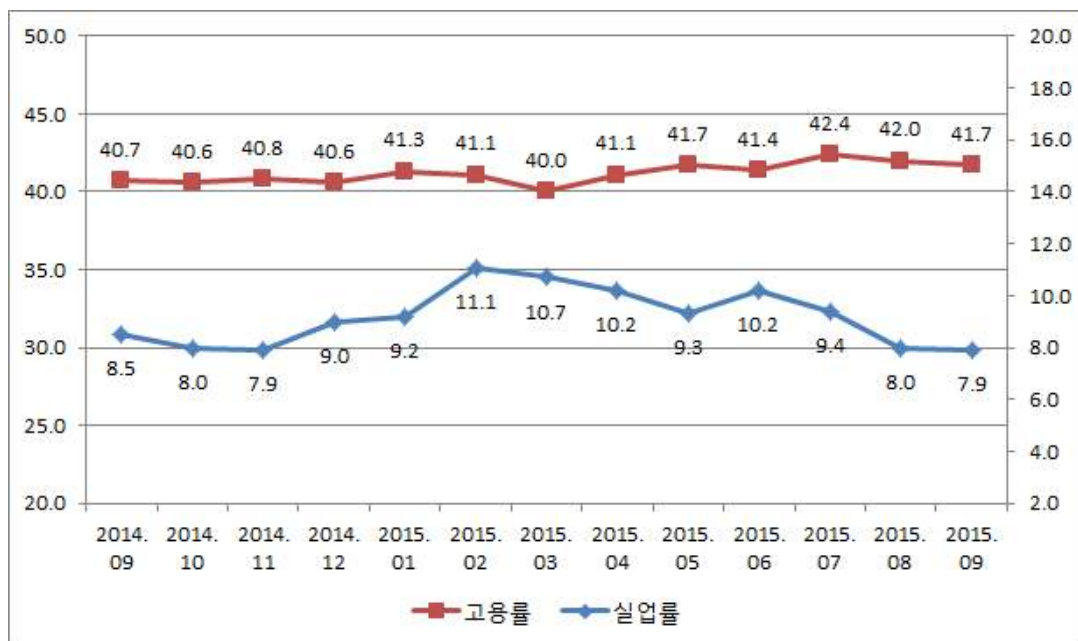
(단위 : %)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응답수	고용률	응답수	고용률	응답수	고용률	응답수	고용률	응답수	고용률	응답수	고용률
3월	3	(61.8)									177	(29.8)
4월	656	(32.8)									468	(35.2)
5월	1001	(33.2)			3	(36.4)					538	(33.6)
6월	497	(31.7)			5	(32.2)	7	(38.6)	86	(33.6)	420	(31.8)
7월	388	(31.9)	149	(32.9)	33	(16.4)	565	(31.6)	539	(33.5)	77	(28.2)
8월	238	(32.0)	806	(32.8)	858	(34.7)	744	(35.0)	479	(31.3)	46	(23.7)
9월	150	(31.8)	505	(31.5)	505	(33.5)	504	(37.0)	442	(26.9)	24	(20.8)
10월	42	(39.5)	888	(34.9)	571	(37.6)	310	(31.7)	440	(30.1)	1	
11월	1		231	(39.7)	467	(36.9)	164	(25.6)	173	(37.7)		
12월			35	(36.7)	22	(47.4)	50	(25.0)	85	(38.2)		

주 : 고용률 산출시 09횡단면 가중치 부여

[그림 7]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





- 재학생의 낮은 고용률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할 경우 증가하는가?
  - KLIPS는 미취업자로 판별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교 및 대학재학생에 대해서 6차 조사부터 지난 조사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기간, 근로조건, 현재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함
  - 미취업자에 대해 조사시점 당시 아르바이트가 진행 중일 경우 취업자로 재분류하여 고용률을 산출함
  - 아래표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더라도 고용률 증가효과는 1% 이하 수준이며,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미미함

<표 8> 고교 및 대학 재학생 아르바이트 취업 보정시 고용률 증가효과

(단위 : %)

	아르바이트 보정 청년층 고용률				아르바이트 보정 전체 고용률			
	09횡단면가중치		09종단면가중치		09횡단면 가중치		09종단면 가중치	
	고용률	증가분	고용률	증가분	고용률	증가분	고용률	증가분
12차	33.2	(0.5)	33.2	(0.5)	54.3	(0.1)	54.3	(0.1)
13차	34.3	(0.3)	33.6	(0.4)	55.9	(0.1)	55.4	(0.1)
14차	36.0	(0.6)	34.5	(0.7)	57.0	(0.1)	56.2	(0.2)
15차	34.2	(0.8)	32.8	(0.9)	57.1	(0.2)	56.3	(0.2)
16차	32.3	(0.8)	30.6	(1.0)	57.1	(0.2)	56.3	(0.2)
17차	33.2	(0.6)	30.8	(0.7)	57.6	(0.1)	56.5	(0.2)

- 추가적으로 재학생 취업자의 과소추정이 청년층 고용형태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학생 취업자의 과소추정이 상대적으로 시간제 고용비중의 하락으로 연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노동패널과 경찰조사 간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은 39.3%로 동일함
  - 비재학생 취업자의 시간제 비중 역시 경찰은 4.2%, 노동패널은 4.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즉 재학생 취업자 판별의 과소추정 문제는 단순히 시간제에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골고루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KLIPS의 재학생 취업자 과소추정 문제는 시간제-아르바이트와 같은 일부 고용형태보다는 보다 청년층 응답자의 전반적인 패널조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8] KLIPS과 경찰조사 청년층 취업자의 고용형태 구성 비교

(단위 : %)



주 : 노동패널 09횡단면 가중치 적용

### 3.4 패널 조건화(panel conditioning) 효과

- KLIPS의 청년층 고용률 과소추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점을 정리하면,
  - 첫째 표집과정 혹은 가중치 부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기가 힘들고,
  - 둘째 청년층의 낮은 개인응답률 역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며,
  - 셋째 청년층 대학 재학생의 취업자수 과소 추정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넷째 대학 재학생 취업자수가 과소 식별 문제는 조사시점 및 기간 효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존에 파악된 아르바이트를 포함시켜도 회복되지 않음
  
- 따라서 KLIPS의 재학생 취업자 수 과소식별의 원인은 패널조사에 특수한 응답자 태도, 즉 ‘패널조건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패널조건화란, ‘응답자가 이전에 조사를 한 번 이상 해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응답상의 변화’를 의미함(최효미 외, 2009)
  - KLIPS 설문 구조상 대학 재학생의 경우, 경험적으로 취업자의 설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 미취업자로 식별되더라도 다른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가능성이 적

- 기 때문에 보유한 일자리에 대해서 생략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 연구에서는 패널 조건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가설들이 기각되었거나 설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패널 조건화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음
  - 예컨대 부업, 교육훈련과 같이 일단 한번 응답하면, 하위 응답문항이 연결되면서 응답부담의 증가로 귀결되는 지표 분석을 통해 패널컨디셔닝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임(다만 KLIPS는 ‘부업’(응답시점 당시 복수의 일자리 진행 중)에 대한 추정 역시 상대적으로 과소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2년 KLIPS 취업자의 부업 비율은 1.9%로 2012.8년 경찰조사 부업자 비중인 1.9%와 동일한 수준임)
- 결론적으로 노동패널의 고용률 과소추정 문제는 패널조사에 특수한 비표집오차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패널조사의 목적이 대표성있는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경찰수준의 고용률로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권장하는 바가 아님(예컨대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재구축 표본 1차조사(2007년)의 고용률은 20% 수준이나, 가중치 부여 후 고용률 40% 수준으로 증가)
  - 고용률 지표의 조정이라는 1개 변수의 교정을 위해 무리하게 가중치를 조정할 경우 다른 주요변수들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조사의 대표성 문제를 훼손할 우려가 존재
  - 오히려 청년층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미취업자 설문체계 개선, 현장조사 관리 등 비표집오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노동력 상태 이동성 분석

- 고용지표에 대한 대표성 보다는 노동력상태의 이동성(mobility)와 같은 노동시장 행태의 미시적-동태적 변화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Wilkins et al.(2013), p. 38. table 7.3. 2005-2010년까지의 경제활동상태간 변동을 4가지 노동력상태(전일제, 시간제, 실업, 비경찰)로 나누어 분석함.
  - Malo and Muñoz-Bullón(2003) 역시 BHPS 첫 3개년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

여 노동력상태간 이동성을 분석함. 특히 비자발적 이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Wilkins et al.(2013)와 같이 노동력 상태 이행에 관한 분석 실시

- <표 9>의 경제활동상태의 인접 연도간 변화(좌측 열)를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변화가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3->2014년 사이의 경우 실업자의 31.4%는 다음해 50.4%(전일제 상용직 31.4%,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 17.4%, 비임금근로 1.6%) 취업으로 이행하며, 37.2%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됨.
-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은 그 다음으로 고용상태의 변화가 큰데, 전일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5.7%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중(10.3%)보다 적게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의 연도간 누적변화(우측 열)를 살펴보면, 2009년 실업자의 71.2%가 취업으로 이행함. 5년 후에도 실업자로 남아있는 비중은 4.7%에 그치며, 24.1%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함.
-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5년 후에는 절반(50.4%)만이 동일한 노동력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각 전일제상용 혹은 비경제활동로 양분됨

○ 비경제활동상태 변화 분석(<표 10>)

- 비경제활동인구로 표본을 제한하여 상태이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내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상태변화 경로를 가진다는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2013->21014년 사이의 비경제활동상태의 변화(좌측 열 하단)를 살펴보면, 전년도 실업자의 31.4%가 전일제 상용직으로 이행하고, 17.4%가 임시일용직 혹은 시간제로 이행함.
- 구직단념자(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적당한 일거거리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5.4%가 다음 해 전일제 상용직으로 이행하며, 21.5%가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으로 이행
- 일시휴직, 구직활동, 취업준비, 발령대기, 취업학원 등의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식별된 경우 13.5%가 전일제 상용직으로 이행하며, 6.9%가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으로 이행
- 그런데 우측 열과 같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5년간 누적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시휴직, 구직활동, 취업준비, 발령대기, 취업학원 등의 전일제 상용직 이행비율은 42.6%로 오히려 실업자(38.0%)보다 높음

<표 9>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단위 : %)

	인접 연도간 변화						기준 시점(2009년) 이후 변화					
	전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일용	비임금 근로	실업자	비경활	합계	전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일용	비임금 근로	실업자	비경활	합계
	<b>2009년(12차)=&gt;2010년(13차)</b>						<b>2009년(12차)=&gt;2010년(13차)</b>					
전일제상용	89.6	2.6	1.6	1.6	4.7	100.0	89.6	2.6	1.6	1.6	4.7	100.0
시간제/임시일용	7.9	72.2	2.8	2.3	15.0	100.0	7.9	72.2	2.8	2.3	15.0	100.0
비임금근로	2.6	1.5	89.2	0.8	5.9	100.0	2.6	1.5	89.2	0.8	5.9	100.0
실업자	30.1	20.6	8.5	9.2	31.7	100.0	30.1	20.6	8.5	9.2	31.7	100.0
비경활	4.6	4.6	2.4	1.2	87.2	100.0	4.6	4.6	2.4	1.2	87.2	100.0
합 계	29.6	10.5	17.3	1.5	41.1	100.0	29.6	10.5	17.3	1.5	41.1	100.0
	<b>2010년(13차)=&gt;2011년(14차)</b>						<b>2009년(12차)=&gt;2011년(14차)</b>					
전일제상용	89.7	2.1	1.5	1.4	5.3	100.0	84.6	4.1	3.2	1.5	6.7	100.0
시간제/임시일용	8.7	74.1	2.5	2.0	12.7	100.0	13.1	62.9	3.9	2.0	18.2	100.0
비임금근로	2.7	1.7	90.2	0.8	4.6	100.0	4.4	3.1	83.0	1.0	8.5	100.0
실업자	32.7	18.0	3.7	20.5	25.1	100.0	35.7	19.3	9.2	9.2	26.6	100.0
비경활	4.5	5.2	1.4	1.5	87.5	100.0	6.9	7.0	3.3	1.4	81.4	100.0
합 계	30.1	11.0	16.4	1.7	40.8	100.0	30.3	11.3	16.8	1.7	39.9	100.0
	<b>2011년(14차)=&gt;2012년(15차)</b>						<b>2009년(12차)=&gt;2012년(15차)</b>					
전일제상용	89.6	2.4	1.7	1.7	4.7	100.0	80.8	5.0	4.6	1.7	7.9	100.0
시간제/임시일용	9.6	73.4	2.3	2.4	12.3	100.0	17.7	55.9	4.5	2.8	19.1	100.0
비임금근로	2.4	2.0	90.9	0.5	4.3	100.0	6.0	4.8	78.8	0.8	9.6	100.0
실업자	27.3	16.6	8.3	14.3	33.5	100.0	40.4	20.4	6.5	5.4	27.4	100.0
비경활	4.7	5.0	1.3	2.0	86.9	100.0	8.6	8.2	4.3	1.7	77.2	100.0
합 계	30.8	11.2	16.1	1.9	40.0	100.0	31.2	11.7	16.9	2.0	38.2	100.0
	<b>2012년(15차)=&gt;2013년(16차)</b>						<b>2009년(12차)=&gt;2013년(16차)</b>					
전일제상용	90.5	1.6	1.8	1.4	4.7	100.0	77.7	6.1	5.9	1.2	9.1	100.0
시간제/임시일용	8.7	75.1	3.0	1.6	11.5	100.0	21.3	51.5	5.8	0.9	20.4	100.0
비임금근로	3.0	1.9	90.1	0.3	4.7	100.0	7.7	5.0	75.7	0.7	11.0	100.0
실업자	24.8	23.2	3.7	18.3	30.1	100.0	38.5	19.8	8.1	6.0	27.6	100.0
비경활	4.4	4.4	1.4	1.5	88.3	100.0	9.8	9.4	4.7	1.5	74.6	100.0
합 계	31.0	11.2	15.7	1.6	40.5	100.0	32.0	12.0	16.8	1.7	37.5	100.0
	<b>2013년(16차)=&gt;2014년(17차)</b>						<b>2009년(12차)=&gt;2014년(17차)</b>					
전일제상용	91.9	1.4	1.2	1.1	4.4	100.0	75.2	6.3	6.9	1.5	10.2	100.0
시간제/임시일용	5.7	79.4	2.3	2.3	10.3	100.0	21.4	50.4	6.3	0.8	21.2	100.0
비임금근로	1.4	2.4	92.5	0.4	3.4	100.0	8.2	6.5	72.4	0.3	12.7	100.0
실업자	31.4	17.4	1.6	12.4	37.2	100.0	38.0	23.2	10.0	4.7	24.1	100.0
비경활	3.7	3.8	1.2	1.7	89.6	100.0	10.5	9.5	5.1	1.4	73.4	100.0
합 계	30.9	11.6	15.8	1.6	40.2	100.0	32.2	12.3	17.1	1.6	36.9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년 폴링자료, 09표본 개인 종단 가중치 사용

주: 두 기간 사이에 관측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만 수치 산출

<표 10> 비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단위 : %)

	인접 연도간 변화						기준 시점(2009년) 이후 변화					
	전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일용	비임금 근로	실업자	비경활	합계	전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일용	비임금 근로	실업자	비경활	합계
	<b>2009년(12차)=&gt;2010년(13차)</b>						<b>2009년(12차)=&gt;2010년(13차)</b>					
실업자	30.1	20.6	8.5	9.2	31.7	100.0	30.1	20.6	8.5	9.2	31.7	100.0
구직단념자	6.0	11.7	1.7	6.8	73.9	100.0	6.0	11.7	1.7	6.8	73.9	100.0
구직활동/취업준비	25.8	14.1	1.6	6.2	52.4	100.0	25.8	14.1	1.6	6.2	52.4	100.0
쉬었음	8.8	9.0	4.6	2.3	75.2	100.0	8.8	9.0	4.6	2.3	75.2	100.0
통학/양육 등	3.5	3.5	2.1	0.8	90.1	100.0	3.5	3.5	2.1	0.8	90.1	100.0
합 계	6.0	5.4	2.8	1.7	84.2	100.0	6.0	5.4	2.8	1.7	84.2	100.0
	<b>2010년(13차)=&gt;2011년(14차)</b>						<b>2009년(12차)=&gt;2011년(14차)</b>					
실업자	32.7	18.0	3.7	20.5	25.1	100.0	35.7	19.3	9.2	9.2	26.6	100.0
구직단념자	16.7	14.1	1.9	2.4	65.0	100.0	8.3	17.7	4.8	5.4	63.8	100.0
구직활동/취업준비	23.3	6.9	1.7	8.6	59.5	100.0	35.5	9.6	2.3	5.5	47.2	100.0
쉬었음	7.0	7.5	2.0	2.9	80.6	100.0	10.0	11.0	5.8	1.9	71.3	100.0
통학/양육 등	3.3	4.6	1.3	1.0	89.8	100.0	5.7	6.1	2.9	1.1	84.1	100.0
합 계	5.5	5.6	1.5	2.2	85.2	100.0	5.5	5.8	1.6	2.3	84.9	100.0
	<b>2011년(14차)=&gt;2012년(15차)</b>						<b>2009년(12차)=&gt;2012년(15차)</b>					
실업자	27.3	16.6	8.3	14.3	33.5	100.0	40.4	20.4	6.5	5.4	27.4	100.0
구직단념자	9.1	15.9	4.9	13.1	57.0	100.0	11.6	18.4	7.9	5.1	57.0	100.0
구직활동/취업준비	29.5	6.1	2.0	1.8	60.6	100.0	39.7	12.3	1.6	11.7	34.7	100.0
쉬었음	5.6	7.9	1.7	5.4	79.4	100.0	13.1	11.6	7.1	2.3	66.0	100.0
통학/양육 등	3.7	4.3	1.2	1.3	89.5	100.0	7.1	7.4	3.9	1.3	80.4	100.0
합 계	5.6	5.5	1.6	2.5	84.8	100.0	5.8	5.8	1.7	2.7	84.1	100.0
	<b>2012년(15차)=&gt;2013년(16차)</b>						<b>2009년(12차)=&gt;2013년(16차)</b>					
실업자	24.8	23.2	3.7	18.3	30.1	100.0	38.5	19.8	8.1	6.0	27.6	100.0
구직단념자	10.4	12.2	4.6	21.1	51.7	100.0	11.4	17.5	8.4	3.0	59.8	100.0
구직활동/취업준비	17.0	10.2	4.1	8.3	60.5	100.0	39.0	12.8	2.7	3.8	41.6	100.0
쉬었음	5.8	5.6	2.6	2.6	83.4	100.0	13.4	13.7	7.7	1.9	63.4	100.0
통학/양육 등	3.7	3.9	1.1	0.9	90.5	100.0	8.6	8.5	4.1	1.4	77.4	100.0
합 계	5.3	5.2	1.5	2.3	85.8	100.0	5.6	5.9	1.8	2.5	84.4	100.0
	<b>2013년(16차)=&gt;2014년(17차)</b>						<b>2009년(12차)=&gt;2014년(17차)</b>					
실업자	31.4	17.4	1.6	12.4	37.2	100.0	38.0	23.2	10.0	4.7	24.1	100.0
구직단념자	5.4	21.5	0.0	12.5	60.6	100.0	9.8	18.8	9.0	3.1	59.3	100.0
구직활동/취업준비	13.5	6.9	1.2	6.1	72.5	100.0	42.6	12.4	5.0	4.6	35.4	100.0
쉬었음	4.8	4.7	3.0	2.7	84.8	100.0	12.8	12.5	7.3	1.6	65.9	100.0
통학/양육 등	3.0	3.3	0.9	1.2	91.6	100.0	9.5	8.8	4.6	1.3	75.7	100.0
합 계	4.7	4.3	1.2	2.1	87.7	100.0	4.9	4.7	1.3	2.4	86.7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년 폴링자료, 09표본 개인 종단 가중치 사용

주: 두 기간 사이에 관측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만 수치 산출

## 5. 정책적 함의 및 토론

### 5.1 고용지표 신뢰성 지표 향상을 위한 방향

- 본문에서는 KLIPS와 경활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KLIPS의 고용률이 경활보다 다소 낮으며, 그 원인은 주로 청년층 고용률 과소추정에 있음을 확인함
  - KLIPS의 고용률 과소 추정은 표집과정이나 가중치 부여와 같이 표집오차에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패널조사가 갖는 고유한 비표집 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청년층 재학생의 취업여부에 대한 응답 기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함
  - 첫째, 청년층 재학생의 경우 본질적으로 학업 등 학교생활에 중심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업자 식별을 위해 과도하게 설문구조를 변경하기 보다는 현재의 조사체계를 유지하는 방법
  - 둘째, 미취업자 대상 문항의 구조 변경을 통해 취업 활동 및 학교 생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끌어내고 취업자대상 문항과 미취업자대상 문항간 응답부담의 균형을 이끌어내는 방법
  
-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년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표본유지율 정책의 변화, 개인 인센티브의 도입, 이메일조사 등 다양한 조사도구의 결합 등 유연한 조사 정책의 실시
  - 둘째, 추가적인 표본 확대 필요. 비록 2009년 표본추가를 통해 전국대표성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하위집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특히 청년층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KLIPS 표본에서 청년층의 실업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이 어려움.

## 5.2 패널 자료 신뢰성 연구의 확장

- KLIPS 주요 변수들의 신뢰성 연구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될 필요가 있음
  - 2009년 추가표본의 구성으로 인해서 KLIPS의 고용관련 변수에 대해 경찰조사 등 다른 대표통계들과 보다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됨
  - 고용상태 및 비정규직 외에도 근로시간, 산업 및 직업, 기간 관련 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신뢰성 검증 연구로 확대될 필요(홍민기, 2014b, 제5장 신동균의 논의 참조)
  
- 개별 변수의 신뢰성 검증에서 더 나아가, 개별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정오차가 다른 추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청년층 취업자 과소추정으로 인해서 고용형태 구성, 임금 구성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패널조사의 비표집오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확대될 필요
  - 최근 KLIPS에서는 패널컨디션, 패널 반복응답에 대한 응답자 피로도(panel fatigue) 등이 패널이탈이나 단위무응답, 히핑(heaping), 돌출효과(seam effects) 다양한 비표집 오차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최효미 외, 2012; 윤윤규 외, 2012; 홍민기 외, 2014a; 2014b) 등 패널자료 품질 연구시리즈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컨디션이나 패널피로도와 같은 현상들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이론 및 실증 작업이 필요.
  - Jackle, (2008), Lynn et al.(2009) 등은 패널조사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서구 주요 가구패널조사의 비표집 오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바 있으나, 국내의 조사 환경과 응답자 특성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중요
  
- 분석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미시적-동태적 분석 영역 및 방법 확장 필요
  - 패널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모든 분석이 엄밀한 모형에 기반할 필요는 없음
  - 일반대중이나 정책담당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도의 계량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석 방법을 이용한 동태적 분석을 강화할 필요



## 참고 문헌

- 김재광 (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박민규 · 김영원 · 변종석 · 송종호 · 임찬수 · 김사라(2013) 한국노동패널 가중치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5) 경제활동구인구조사 지침서.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3) : 89-127.
- 황수경 · 양정승 (2002)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가능성”, 한국노동패널 위킹페이퍼시리즈,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2,
- 최효미 · 이상호 · 성재민 · 김기민 · 배기준 (2012) 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기법연구-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방법-, 한국노동연구원.
- 윤윤규 · 홍민기 · 이상호 · 배기준 · 최효미 · 김기민 · 장숙량 · 조성일 · 천희란 (2012)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 · 김재광 · 한치록 · 김기민 (2014a)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III),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 · 한치록 · 김재광 · 신동균 · 김기민 · 이고은 (2014b)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IV), 한국노동연구원.
- Burkhauser, R.V. and Smeeding, T.M. (2001) “The Role of Micro-level Panel Data in Policy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121 (4): 469-500.
- Davies, P. (2004) “Is Evidence Based Government Possible?”, Jerry Lee Lectur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19 February, Washington DC.
- Duncan, G.J., Juster, F.T., and Morgan, J.N. (1987) “The role of panel studies in research on economic behaviour”, *Transportation Research*, 21A (4/5):249-263.
- Jäckle, Annette(2008). “The Causes of Seam Effects in Panel Surveys”, *ISER Working Paper Series*.
- Lynn, Peter(2009) *Methodology of Longitudinal Surveys*. WILEY.
- Malo, M. A. and Muñoz-Bullón, F. (2003) “Employment status mobility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A sequence analysis of work-histories in the BHPS”, *Demographic Research* 9(7) : 119-162
- Wijesekere, G. (2009) “The Role of Household Panel Surveys in Evidence-based Policy”, Australasian Evaluation Society International Evaluation Conference, 31 August-4 September, 2009 Canberr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Wilkins, R.(Eds.)(2013) *Families, Incomes and Jobs, Volume 8: A Statistical Report on Wave 1 to 10 of 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Survey*,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elbourne.

<부표 1>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분포

(단위 : 천명, %)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계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계
노동패널-98횡단가중치														
1차	3,258	6,072	6,916	5,897	3,829	4,064	30,035	10.8	20.2	23.0	19.6	12.7	13.5	100.0
2차	3,260	5,817	6,848	5,936	3,897	4,489	30,247	10.8	19.2	22.6	19.6	12.9	14.8	100.0
3차	2,989	5,852	6,751	6,073	4,031	4,810	30,505	9.8	19.2	22.1	19.9	13.2	15.8	100.0
4차	2,797	5,952	6,524	6,396	4,059	4,994	30,721	9.1	19.4	21.2	20.8	13.2	16.3	100.0
5차	2,655	5,656	6,608	6,433	4,209	5,333	30,894	8.6	18.3	21.4	20.8	13.6	17.3	100.0
6차	2,638	5,749	6,419	6,559	4,304	5,379	31,047	8.5	18.5	20.7	21.1	13.9	17.3	100.0
7차	2,641	5,511	6,392	6,646	4,521	5,449	31,161	8.5	17.7	20.5	21.3	14.5	17.5	100.0
8차	2,648	5,268	6,163	6,679	4,782	5,702	31,241	8.5	16.9	19.7	21.4	15.3	18.3	100.0
9차	2,664	5,156	5,870	6,690	5,078	5,922	31,380	8.5	16.4	18.7	21.3	16.2	18.9	100.0
10차	2,779	4,993	5,801	6,619	5,174	6,164	31,530	8.8	15.8	18.4	21.0	16.4	19.5	100.0
11차	2,952	4,801	5,503	6,649	5,360	6,495	31,760	9.3	15.1	17.3	20.9	16.9	20.5	100.0
12차	2,854	4,888	5,390	6,563	5,510	6,714	31,919	8.9	15.3	16.9	20.6	17.3	21.0	100.0
13차	2,803	4,611	5,482	6,379	5,684	7,107	32,067	8.7	14.4	17.1	19.9	17.7	22.2	100.0
14차	2,795	4,364	5,446	6,248	6,070	7,381	32,304	8.7	13.5	16.9	19.3	18.8	22.8	100.0
15차	2,710	4,401	5,072	6,199	6,352	7,717	32,451	8.4	13.6	15.6	19.1	19.6	23.8	100.0
16차	2,523	4,708	4,899	5,891	6,673	7,895	32,589	7.7	14.4	15.0	18.1	20.5	24.2	100.0
17차	1,941	4,585	4,569	6,108	7,092	8,431	32,725	5.9	14.0	14.0	18.7	21.7	25.8	100.0
노동패널-09횡단가중치														
12차	3,969	6,591	8,212	8,472	6,336	7,370	40,950	9.7	16.1	20.1	20.7	15.5	18.0	100.0
13차	3,434	6,594	7,794	8,205	6,565	7,607	40,200	8.5	16.4	19.4	20.4	16.3	18.9	100.0
14차	3,466	6,916	8,089	8,533	7,065	7,937	42,006	8.3	16.5	19.3	20.3	16.8	18.9	100.0
15차	3,421	6,819	8,011	8,532	7,417	8,243	42,443	8.1	16.1	18.9	20.1	17.5	19.4	100.0
16차	3,345	6,774	7,902	8,531	7,718	8,571	42,841	7.8	15.8	18.4	19.9	18.0	20.0	100.0
17차	3,264	6,774	7,778	8,514	7,949	8,943	43,221	7.6	15.7	18.0	19.7	18.4	20.7	100.0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3,982	7,669	8,484	6,223	4,196	4,792	35,347	11.3	21.7	24.0	17.6	11.9	13.6	100.0
1999년	3,920	7,542	8,466	6,550	4,279	5,001	35,757	11.0	21.1	23.7	18.3	12.0	14.0	100.0
2000년	3,769	7,474	8,467	6,903	4,360	5,213	36,186	10.4	20.7	23.4	19.1	12.0	14.4	100.0
2001년	3,552	7,401	8,488	7,261	4,432	5,445	36,579	9.7	20.2	23.2	19.9	12.1	14.9	100.0
2002년	3,336	7,315	8,511	7,566	4,544	5,690	36,963	9.0	19.8	23.0	20.5	12.3	15.4	100.0
2003년	3,165	7,203	8,517	7,843	4,694	5,918	37,340	8.5	19.3	22.8	21.0	12.6	15.8	100.0
2004년	3,070	7,070	8,514	8,029	4,916	6,118	37,717	8.1	18.7	22.6	21.3	13.0	16.2	100.0
2005년	3,046	6,874	8,462	8,176	5,282	6,460	38,300	8.0	17.9	22.1	21.3	13.8	16.9	100.0
2006년	3,102	6,741	8,382	8,246	5,595	6,696	38,762	8.0	17.4	21.6	21.3	14.4	17.3	100.0
2007년	3,202	6,653	8,282	8,282	5,873	6,878	39,170	8.2	17.0	21.1	21.1	15.0	17.6	100.0
2008년	3,238	6,584	8,248	8,353	6,091	7,084	39,598	8.2	16.6	20.8	21.1	15.4	17.9	100.0
2009년	3,284	6,496	8,186	8,402	6,394	7,330	40,092	8.2	16.2	20.4	21.0	15.9	18.3	100.0
2010년	3,337	6,369	8,102	8,418	6,754	7,610	40,590	8.2	15.7	20.0	20.7	16.6	18.7	100.0
2011년	3,348	6,241	8,018	8,432	7,100	7,913	41,052	8.2	15.2	19.5	20.5	17.3	19.3	100.0
2012년	3,298	6,219	7,912	8,452	7,411	8,290	41,582	7.9	15.0	19.0	20.3	17.8	19.9	100.0
2013년	3,263	6,285	7,838	8,469	7,666	8,575	42,096	7.8	14.9	18.6	20.1	18.2	20.4	100.0
2014년	3,187	6,315	7,729	8,453	7,874	8,954	42,513	7.5	14.9	18.2	19.9	18.5	21.1	10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부표 2>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분포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광역시 합계	도지역 합계
노동패널- 98 횡단 가중치																			
1차	25.8	10.0	6.6	3.4	5.9	3.3	2.5	16.8	2.6	2.3	2.7	4.3	2.5	5.1	6.2	0.0	100.0	31.6	25.8
2차	25.8	9.8	6.6	3.4	5.9	3.3	2.4	17.3	2.6	2.3	2.7	4.2	2.6	5.0	6.2	0.0	100.0	31.3	25.6
3차	25.7	9.8	6.6	3.5	5.9	3.1	2.4	17.6	2.5	2.3	2.7	4.1	2.5	4.9	6.4	0.0	100.0	31.2	25.5
4차	25.6	9.3	6.7	3.5	5.9	3.4	2.3	17.9	2.5	2.3	2.6	4.3	2.5	5.0	6.2	0.0	100.0	31.1	25.4
5차	25.2	8.9	7.4	3.3	6.1	3.5	2.2	18.3	2.5	2.2	2.7	4.3	2.5	5.0	6.0	0.0	100.0	31.4	25.1
6차	25.3	8.5	7.8	3.2	6.0	3.1	2.1	19.6	2.5	2.0	2.5	4.1	2.4	5.0	5.8	0.0	100.0	30.8	24.3
7차	25.0	8.0	7.3	3.2	6.3	3.1	2.0	21.1	2.7	2.0	2.4	4.0	2.3	4.9	5.7	0.0	100.0	29.8	24.1
8차	24.8	7.9	7.3	3.2	6.2	3.0	2.0	21.6	3.0	2.2	2.5	3.7	2.2	4.8	5.5	0.0	100.0	29.7	24.0
9차	24.7	7.7	7.5	3.1	6.2	3.1	2.0	21.8	2.8	2.3	2.5	3.6	2.3	4.8	5.5	0.0	100.0	29.6	23.9
10차	24.8	7.5	7.4	3.1	6.3	3.0	2.1	22.2	3.0	2.2	2.4	3.7	2.2	4.8	5.5	0.0	100.0	29.2	23.7
11차	25.1	7.3	7.2	3.1	6.2	2.8	2.0	22.4	3.0	2.3	2.5	3.7	2.2	4.9	5.2	0.0	100.0	28.8	23.8
12차	25.0	7.0	7.0	3.3	6.7	2.8	2.1	22.8	3.1	2.1	2.4	3.6	2.3	4.8	5.0	0.0	100.0	29.0	23.3
13차	25.4	6.9	7.0	3.4	6.3	3.0	2.1	22.4	3.0	2.1	2.6	3.6	2.3	4.9	5.1	0.0	100.0	28.7	23.5
14차	25.2	6.8	6.7	3.2	6.4	3.0	2.0	23.4	2.9	2.2	2.6	3.5	2.2	4.7	5.2	0.0	100.0	28.0	23.3
15차	25.1	6.7	6.5	3.1	6.4	3.1	2.0	23.6	3.1	2.1	2.4	3.5	2.2	4.9	5.4	0.1	100.0	27.7	23.6
16차	24.4	6.6	6.5	3.2	6.5	3.1	2.0	24.1	3.1	2.1	2.6	3.3	2.2	4.8	5.5	0.1	100.0	27.8	23.7
17차	23.4	7.0	6.8	2.9	6.5	3.0	2.1	24.0	3.3	2.1	2.6	3.3	2.2	4.9	5.7	0.1	100.0	28.4	24.2
노동패널 - 09 횡단가중치																			
12차	21.1	7.3	5.0	3.0	5.4	2.9	2.2	22.6	3.0	3.1	4.1	3.6	3.6	5.4	6.4	1.1	100.0	25.9	30.4
13차	20.6	7.3	5.1	3.1	5.5	3.0	2.2	22.8	3.1	3.1	4.2	3.7	3.6	5.4	6.4	1.1	100.0	26.1	30.6
14차	20.7	7.1	5.0	3.0	5.5	2.9	2.2	23.2	3.0	3.1	4.2	3.6	3.6	5.4	6.4	1.1	100.0	25.7	30.4
15차	20.4	7.1	5.0	3.0	5.5	2.9	2.2	23.5	3.0	3.1	4.3	3.6	3.5	5.4	6.4	1.1	100.0	25.7	30.4
16차	20.2	7.0	4.9	3.0	5.6	3.0	2.2	23.7	3.0	3.1	4.3	3.6	3.5	5.3	6.4	1.1	100.0	25.7	30.3
17차	20.1	6.9	4.9	3.0	5.6	2.9	2.2	23.9	3.0	3.1	4.3	3.6	3.5	5.3	6.4	1.1	100.0	25.7	30.3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22.4	8.3	5.4	2.9	5.2	2.8	2.1	18.1	3.3	3.2	4.1	4.5	4.2	6.4	6.1	1.1	100.0	26.7	32.8
1999년	22.2	8.2	5.4	2.9	5.2	2.8	2.1	18.4	3.3	3.2	4.1	4.4	4.2	6.4	6.0	1.1	100.0	26.7	32.7
2000년	22.1	8.1	5.4	2.9	5.2	2.9	2.1	18.8	3.2	3.2	4.0	4.4	4.1	6.4	6.0	1.1	100.0	26.6	32.4
2001년	22.0	8.1	5.4	2.9	5.3	2.9	2.1	19.3	3.2	3.2	4.0	4.3	4.1	6.4	5.9	1.1	100.0	26.6	32.0
2002년	21.7	7.9	5.3	3.0	5.3	2.9	2.1	20.0	3.2	3.1	3.9	4.2	4.0	6.4	5.8	1.1	100.0	26.6	31.7
2003년	21.5	7.8	5.3	3.0	5.3	2.9	2.2	20.7	3.1	3.1	3.9	4.0	3.9	6.4	5.8	1.1	100.0	26.5	31.3
2004년	21.3	7.7	5.3	3.0	5.3	2.9	2.2	21.4	3.1	3.1	3.9	3.9	3.8	6.4	5.7	1.1	100.0	26.4	30.9
2005년	21.2	7.6	5.3	3.0	5.3	2.9	2.2	21.9	3.0	3.1	3.9	3.8	3.8	6.3	5.6	1.1	100.0	26.3	30.6
2006년	21.1	7.5	5.2	3.0	5.4	2.9	2.2	22.4	3.0	3.0	3.9	3.7	3.7	6.3	5.5	1.1	100.0	26.2	30.4
2007년	20.9	7.4	5.2	3.1	5.4	2.9	2.2	22.9	3.0	3.0	3.9	3.6	3.6	6.3	5.5	1.1	100.0	26.1	30.1
2008년	20.9	7.3	5.1	3.0	5.4	2.9	2.2	23.2	2.9	3.0	3.9	3.6	3.6	6.4	5.4	1.1	100.0	26.0	30.0
2009년	20.8	7.2	5.1	3.0	5.5	2.9	2.2	23.4	2.9	3.0	4.0	3.6	3.5	6.4	5.4	1.1	100.0	25.9	29.9
2010년	20.7	7.1	5.1	3.0	5.5	2.9	2.3	23.7	2.9	3.0	4.0	3.5	3.5	6.4	5.4	1.1	100.0	25.8	29.8
2011년	20.5	7.1	5.0	3.0	5.5	2.9	2.2	24.1	2.9	3.0	4.0	3.5	3.5	6.4	5.3	1.1	100.0	25.7	29.8
2012년	20.3	7.0	5.0	3.0	5.6	2.9	2.2	23.9	2.9	3.1	4.1	3.5	3.5	6.4	5.3	1.1	100.0	25.7	30.0
2013년	20.2	7.0	4.9	3.0	5.6	3.0	2.2	23.7	3.0	3.1	4.3	3.5	3.6	6.4	5.3	1.1	100.0	25.7	30.3
2014년	20.0	7.0	4.9	3.0	5.7	3.0	2.2	23.9	3.0	3.1	4.4	3.5	3.6	6.4	5.3	1.1	100.0	25.7	30.4

<부표 3> 성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경찰							노동패널					
	전체			비농가				98횡단			09횡단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998년	11,847	8,090	19,938	10,489	6,841	17,330	1차	8,883	5,613	14,500			
1999년	11,954	8,337	20,291	10,612	7,153	17,765	2차	9,379	6,348	15,730			
2000년	12,387	8,769	21,156	11,076	7,574	18,650	3차	9,537	6,241	15,780			
2001년	12,581	8,991	21,572	11,296	7,829	19,125	4차	9,611	6,505	16,120			
2002년	12,944	9,225	22,169	11,693	8,079	19,771	5차	9,935	6,733	16,670			
2003년	13,031	9,108	22,139	11,831	8,036	19,867	6차	9,876	6,713	16,590			
2004년	13,193	9,364	22,557	12,074	8,354	20,428	7차	9,932	6,693	16,630			
2005년	13,330	9,526	22,856	12,213	8,538	20,751	8차	9,843	6,620	16,460			
2006년	13,444	9,706	23,151	12,338	8,740	21,078	9차	9,908	6,669	16,580			
2007년	13,607	9,826	23,433	12,539	8,897	21,435	10차	9,938	6,708	16,650			
2008년	13,703	9,874	23,577	12,652	8,976	21,629	11차	10,030	6,817	16,850			
2009년	13,734	9,772	23,506	12,658	8,883	21,541	12차	10,010	6,933	16,940	13,390	8,776	22,160
2010년	13,915	9,914	23,829	12,844	9,060	21,904	13차	10,090	7,164	17,260	13,410	9,030	22,440
2011년	14,153	10,091	24,244	13,085	9,228	22,313	14차	10,350	7,345	17,700	14,350	9,524	23,870
2012년	14,387	10,294	24,681	13,282	9,415	22,697	15차	10,210	7,476	17,690	14,510	9,640	24,150
2013년	14,573	10,494	25,066	13,466	9,622	23,088	16차	10,330	7,605	17,930	14,610	9,778	24,380
2014년	14,839	10,761	25,599	13,749	9,911	23,660	17차	10,540	7,856	18,390	14,980	9,862	24,850
비중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998년	59.4	40.6	100.0	60.5	39.5	100.0	1차	61.3	38.7	100.0			
1999년	58.9	41.1	100.0	59.7	40.3	100.0	2차	59.6	40.4	100.0			
2000년	58.6	41.4	100.0	59.4	40.6	100.0	3차	60.4	39.6	100.0			
2001년	58.3	41.7	100.0	59.1	40.9	100.0	4차	59.6	40.4	100.0			
2002년	58.4	41.6	100.0	59.1	40.9	100.0	5차	59.6	40.4	100.0			
2003년	58.9	41.1	100.0	59.6	40.4	100.0	6차	59.5	40.5	100.0			
2004년	58.5	41.5	100.0	59.1	40.9	100.0	7차	59.7	40.2	100.0			
2005년	58.3	41.7	100.0	58.9	41.1	100.0	8차	59.8	40.2	100.0			
2006년	58.1	41.9	100.0	58.5	41.5	100.0	9차	59.8	40.2	100.0			
2007년	58.1	41.9	100.0	58.5	41.5	100.0	10차	59.7	40.3	100.0			
2008년	58.1	41.9	100.0	58.5	41.5	100.0	11차	59.5	40.5	100.0			
2009년	58.4	41.6	100.0	58.8	41.2	100.0	12차	59.1	40.9	100.0	60.4	39.6	100.0
2010년	58.4	41.6	100.0	58.6	41.4	100.0	13차	58.5	41.5	100.0	59.8	40.2	100.0
2011년	58.4	41.6	100.0	58.6	41.4	100.0	14차	58.5	41.5	100.0	60.1	39.9	100.0
2012년	58.3	41.7	100.0	58.5	41.5	100.0	15차	57.7	42.3	100.0	60.1	39.9	100.0
2013년	58.1	41.9	100.0	58.3	41.7	100.0	16차	57.6	42.4	100.0	59.9	40.1	100.0
2014년	58.0	42.0	100.0	58.1	41.9	100.0	17차	57.3	42.7	100.0	60.3	39.7	100.0

<부표 4> 연령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계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계
노동패널-98횡단가중치														
1차	134	2,653	4,440	4,023	2,186	1,061	14,500	0.9	18.3	30.6	27.7	15.1	7.3	100.0
2차	243	2,781	4,712	4,310	2,440	1,242	15,730	1.5	17.7	30.0	27.4	15.5	7.9	100.0
3차	180	2,786	4,589	4,424	2,473	1,326	15,780	1.1	17.7	29.1	28.0	15.7	8.4	100.0
4차	167	2,843	4,426	4,763	2,541	1,376	16,120	1.0	17.6	27.5	29.5	15.8	8.5	100.0
5차	135	2,802	4,566	4,869	2,794	1,502	16,670	0.8	16.8	27.4	29.2	16.8	9.0	100.0
6차	119	2,942	4,351	4,931	2,749	1,497	16,590	0.7	17.7	26.2	29.7	16.6	9.0	100.0
7차	112	2,828	4,319	4,960	2,935	1,471	16,630	0.7	17.0	26.0	29.8	17.7	8.8	100.0
8차	72	2,704	4,173	4,972	3,035	1,508	16,460	0.4	16.4	25.3	30.2	18.4	9.2	100.0
9차	75	2,654	3,995	5,029	3,283	1,540	16,580	0.5	16.0	24.1	30.3	19.8	9.3	100.0
10차	84	2,494	3,925	5,066	3,407	1,671	16,650	0.5	15.0	23.6	30.4	20.5	10.0	100.0
11차	80	2,478	3,749	5,166	3,528	1,850	16,850	0.5	14.7	22.2	30.7	20.9	11.0	100.0
12차	41	2,493	3,733	5,040	3,647	1,990	16,940	0.2	14.7	22.0	29.8	21.5	11.7	100.0
13차	61	2,289	3,817	5,102	3,908	2,078	17,260	0.4	13.3	22.1	29.6	22.6	12.0	100.0
14차	87	2,164	3,908	4,926	4,381	2,230	17,700	0.5	12.2	22.1	27.8	24.7	12.6	100.0
15차	67	2,113	3,602	4,817	4,624	2,463	17,690	0.4	11.9	20.4	27.2	26.1	13.9	100.0
16차	46	2,154	3,588	4,617	4,895	2,631	17,930	0.3	12.0	20.0	25.7	27.3	14.7	100.0
17차	53	2,034	3,353	4,682	5,322	2,948	18,390	0.3	11.1	18.2	25.5	28.9	16.0	100.0
노동패널-09횡단 가중치														
12차	64	3,388	5,623	6,525	4,229	2,333	22,160	0.3	15.3	25.4	29.4	19.1	10.5	100.0
13차	88	3,318	5,438	6,562	4,602	2,432	22,440	0.4	14.8	24.2	29.2	20.5	10.8	100.0
14차	129	3,551	5,740	6,768	5,088	2,596	23,870	0.5	14.9	24.0	28.4	21.3	10.9	100.0
15차	89	3,324	5,663	6,797	5,452	2,829	24,150	0.4	13.8	23.4	28.1	22.6	11.7	100.0
16차	71	3,113	5,699	6,768	5,742	2,990	24,380	0.3	12.8	23.4	27.8	23.6	12.3	100.0
17차	93	3,175	5,652	6,642	6,024	3,260	24,850	0.4	12.8	22.7	26.7	24.2	13.1	100.0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331	4401	6018	4644	2786	1757	19938	1.7	22.1	30.2	23.3	14.0	8.8	100.0
1999년	351	4340	6018	4888	2829	1865	20291	1.7	21.4	29.7	24.1	13.9	9.2	100.0
2000년	389	4490	6137	5277	2899	1963	21156	1.8	21.2	29.0	24.9	13.7	9.3	100.0
2001년	358	4457	6167	5561	2959	2071	21572	1.7	20.7	28.6	25.8	13.7	9.6	100.0
2002년	313	4486	6212	5856	3098	2204	22169	1.4	20.2	28.0	26.4	14.0	9.9	100.0
2003년	272	4334	6186	6031	3174	2142	22139	1.2	19.6	27.9	27.2	14.3	9.7	100.0
2004년	258	4320	6181	6206	3334	2257	22557	1.1	19.2	27.4	27.5	14.8	10.0	100.0
2005년	243	4207	6122	6305	3599	2381	22856	1.1	18.4	26.8	27.6	15.7	10.4	100.0
2006년	209	4061	6136	6407	3835	2503	23151	0.9	17.5	26.5	27.7	16.6	10.8	100.0
2007년	211	3992	6035	6484	4093	2618	23433	0.9	17.0	25.8	27.7	17.5	11.2	100.0
2008년	190	3894	6010	6548	4300	2636	23577	0.8	16.5	25.5	27.8	18.2	11.2	100.0
2009년	178	3779	5837	6524	4498	2690	23506	0.8	16.1	24.8	27.8	19.1	11.4	100.0
2010년	204	3710	5833	6553	4792	2737	23829	0.9	15.6	24.5	27.5	20.1	11.5	100.0
2011년	227	3652	5786	6611	5083	2886	24244	0.9	15.1	23.9	27.3	21.0	11.9	100.0
2012년	231	3612	5756	6622	5353	3108	24681	0.9	14.6	23.3	26.8	21.7	12.6	100.0
2013년	224	3569	5735	6644	5606	3289	25066	0.9	14.2	22.9	26.5	22.4	13.1	100.0
2014년	244	3625	5714	6682	5845	3489	25599	1.0	14.2	22.3	26.1	22.8	13.6	10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부표 5> 지역별 취업자 분포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광역시 합계	도지역 합계
노동패널- 98 횡단 가중치																			
1차	25.9	8.8	6.2	3.4	5.9	3.1	2.4	17.4	2.6	2.3	3.0	4.3	2.7	5.7	6.4	0.0	100.0	29.7	27.0
2차	25.4	9.1	6.6	3.2	5.9	2.8	2.2	17.9	2.3	2.3	3.1	4.4	2.7	5.6	6.4	0.0	100.0	29.9	26.8
3차	25.3	9.1	6.6	3.5	5.8	2.8	2.4	17.9	2.3	2.0	3.0	4.2	2.7	5.8	6.6	0.0	100.0	30.2	26.6
4차	25.5	8.9	6.6	3.6	5.8	3.0	2.3	17.9	2.1	2.1	2.9	4.5	2.7	5.6	6.6	0.0	100.0	30.2	26.4
5차	25.5	8.8	6.9	3.5	6.0	3.3	2.2	18.8	2.0	1.9	2.7	4.1	2.5	5.3	6.3	0.0	100.0	30.7	25.0
6차	25.0	8.2	7.9	3.2	5.9	2.8	2.3	19.7	2.4	1.9	2.7	4.1	2.5	5.3	6.0	0.1	100.0	30.3	25.0
7차	24.9	7.8	6.9	3.0	6.6	2.8	2.1	20.9	2.6	1.9	2.6	3.9	2.5	5.2	6.2	0.0	100.0	29.2	24.9
8차	24.9	7.9	6.9	3.2	6.3	2.9	2.1	21.3	2.7	2.0	2.6	3.8	2.5	5.0	5.8	0.0	100.0	29.3	24.5
9차	24.0	7.7	6.9	3.3	6.5	2.8	2.2	21.9	2.6	2.3	2.6	3.7	2.5	5.1	5.9	0.0	100.0	29.4	24.7
10차	23.8	7.4	7.0	3.3	7.0	2.8	2.2	21.9	2.7	2.2	2.7	3.9	2.3	5.0	5.8	0.1	100.0	29.7	24.6
11차	24.6	7.3	6.6	3.4	6.5	2.7	2.2	22.0	2.6	2.3	2.9	3.7	2.3	5.3	5.8	0.1	100.0	28.6	24.8
12차	24.6	6.8	6.7	3.7	7.1	2.5	2.3	22.0	2.8	2.1	2.7	3.6	2.2	5.2	5.6	0.0	100.0	29.1	24.2
13차	24.6	6.5	6.7	3.9	6.6	3.0	2.3	22.5	2.4	2.1	2.8	3.5	2.3	5.7	5.2	0.0	100.0	28.9	23.9
14차	24.6	6.5	6.5	3.7	6.6	2.9	2.2	23.1	2.4	2.2	2.8	3.4	2.3	5.5	5.4	0.0	100.0	28.4	24.0
15차	24.6	6.7	5.8	3.4	6.6	2.8	2.3	23.9	2.6	2.1	2.6	3.2	2.3	5.5	5.4	0.0	100.0	27.7	23.8
16차	23.8	6.5	5.7	3.5	7.0	3.1	2.3	24.0	2.7	2.2	3.1	3.1	2.2	5.3	5.6	0.0	100.0	28.1	24.1
17차	22.6	6.8	6.2	3.0	6.9	2.9	2.3	24.3	2.9	2.2	3.2	3.3	2.2	5.4	5.8	0.0	100.0	28.2	24.9
노동패널 - 09 횡단가중치																			
12차	20.7	7.3	4.6	3.2	5.7	2.6	2.4	22.0	2.7	2.9	4.7	3.8	3.6	5.9	6.8	1.1	100.0	25.9	31.3
13차	19.6	6.9	4.7	3.4	5.8	3.2	2.3	22.9	2.5	3.0	4.7	3.5	3.8	6.1	6.5	1.1	100.0	26.3	31.3
14차	19.9	6.9	4.7	3.2	5.7	3.1	2.3	23.4	2.4	3.1	4.7	3.4	3.7	5.9	6.4	1.2	100.0	26.0	30.8
15차	20.1	7.0	4.5	3.2	5.7	2.9	2.4	23.7	2.6	3.1	4.6	3.4	3.5	5.7	6.4	1.3	100.0	25.7	30.5
16차	20.0	6.8	4.5	3.2	5.9	2.9	2.4	23.6	2.6	3.2	4.6	3.4	3.5	5.6	6.5	1.2	100.0	25.7	30.7
17차	19.3	6.7	4.6	2.9	5.8	3.2	2.4	23.8	2.6	3.3	4.9	3.6	3.5	5.5	6.5	1.3	100.0	25.6	31.3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22.2	7.9	5.1	2.7	5.0	2.6	2.1	18.2	3.2	3.2	4.3	4.1	5.0	6.6	6.6	1.2	100.0	25.4	34.3
1999년	22.1	7.7	5.1	2.7	5.1	2.6	2.0	18.7	3.2	3.2	4.3	4.1	4.8	6.5	6.5	1.2	100.0	25.3	33.9
2000년	22.1	7.7	5.2	2.7	5.2	2.6	2.1	19.2	3.2	3.1	4.2	4.0	4.6	6.5	6.4	1.2	100.0	25.5	33.3
2001년	21.9	7.6	5.2	2.8	5.3	2.7	2.1	19.6	3.1	3.1	4.1	3.9	4.5	6.4	6.4	1.2	100.0	25.7	32.8
2002년	21.6	7.7	5.2	2.9	5.3	2.7	2.1	20.2	3.1	3.1	4.1	3.8	4.4	6.2	6.3	1.2	100.0	26.0	32.2
2003년	21.5	7.3	5.2	2.9	5.3	2.7	2.2	20.9	3.0	3.0	4.1	3.8	4.3	6.2	6.5	1.3	100.0	25.5	32.2
2004년	21.4	7.1	5.2	2.9	5.3	2.7	2.2	21.6	3.0	3.0	4.1	3.6	4.1	6.1	6.5	1.2	100.0	25.3	31.6
2005년	21.4	7.1	5.2	2.8	5.3	2.7	2.2	22.1	2.9	3.0	4.1	3.6	4.1	6.0	6.4	1.2	100.0	25.2	31.3
2006년	21.2	7.0	5.1	2.9	5.3	2.7	2.1	22.6	2.9	3.0	4.2	3.6	4.0	5.9	6.4	1.2	100.0	25.1	31.2
2007년	21.1	6.9	4.9	2.9	5.4	2.7	2.2	23.0	2.9	3.0	4.3	3.5	3.9	5.8	6.4	1.2	100.0	25.0	30.9
2008년	20.9	6.8	4.8	3.0	5.4	2.7	2.2	23.5	2.9	3.0	4.1	3.5	3.8	5.7	6.5	1.2	100.0	24.9	30.8
2009년	20.6	6.7	4.9	3.0	5.5	2.8	2.2	23.6	2.9	3.1	4.1	3.5	3.9	5.7	6.5	1.2	100.0	25.0	30.9
2010년	20.7	6.6	4.9	2.9	5.5	2.8	2.2	23.8	2.8	3.1	4.1	3.4	3.7	5.7	6.4	1.2	100.0	25.0	30.5
2011년	20.7	6.5	4.8	2.9	5.6	2.8	2.2	24.1	2.8	3.1	4.1	3.4	3.7	5.6	6.5	1.2	100.0	24.9	30.4
2012년	20.4	6.6	4.9	2.9	5.7	2.8	2.2	24.0	2.8	3.0	4.3	3.4	3.7	5.6	6.4	1.2	100.0	25.1	30.5
2013년	20.3	6.6	4.8	2.9	5.8	2.8	2.2	23.9	2.8	3.1	4.5	3.5	3.7	5.5	6.5	1.2	100.0	25.0	30.8
2014년	20.1	6.5	4.7	3.0	5.7	2.9	2.1	24.3	2.8	3.2	4.5	3.4	3.6	5.5	6.4	1.2	100.0	25.0	30.6

<부표 6> 비경제활동인구 분포(전체)

(단위 : %)

비경제활동인구	경황						노동패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	13	14	15	16	17
계	15,698	15,841	15,953	16,081	16,223	15,977	17,735	17,140	17,405	17,494	17,806	17,699
육아	1,599	1,474	1,469	1,467	1,469	1,429	698	1,007	936	988	1,009	1,037
가사	5,552	5,753	5,854	5,977	5,973	5,843	6,403	6,018	6,226	6,259	6,194	6,457
통학	4,292	4,305	4,254	4,242	4,319	4,238	5,364	4,924	4,873	5,103	5,186	5,174
정규교육기관통학	<u>3,974</u>	<u>3,960</u>	<u>3,948</u>	<u>3,970</u>	<u>4,073</u>	<u>3,982</u>	<u>5,115</u>	<u>4,621</u>	<u>4,613</u>	<u>4,758</u>	<u>4,876</u>	<u>4,931</u>
입시학원통학	78	78	80	79	55	67	107	129	117	142	146	90
취업목적 학원·기관통학	240	266	226	193	191	189	143	173	144	203	164	153
연로	1,606	1,686	1,641	1,788	1,842	1,935	1,483	1,354	1,368	1,266	1,352	1,346
심신장애	448	441	415	393	403	424	749	702	772	753	818	725
그외	<b>2,202</b>	<b>2,184</b>	<b>2,321</b>	<b>2,215</b>	<b>2,216</b>	<b>2,108</b>	<b>3,037</b>	<b>3,136</b>	<b>3,229</b>	<b>3,124</b>	<b>3,248</b>	<b>2,960</b>
취업준비	351	359	346	368	383	371	250	297	247	327	471	484
진학준비	144	178	173	142	137	119	156	106	148	137	104	80
군입대대기	44	55	56	59	59	68	93	92	98	97	91	124
쉬었음	<u>1,475</u>	<u>1,418</u>	<u>1,600</u>	<u>1,547</u>	<u>1,540</u>	<u>1,448</u>	<u>2,334</u>	<u>2,420</u>	<u>2,482</u>	<u>2,298</u>	<u>2,382</u>	<u>2,119</u>
기타 등	188	173	147	99	98	102	206	221	254	265	200	151
비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육아	10.2	9.3	9.2	9.1	9.1	8.9	3.9	5.9	5.4	5.6	5.7	5.9
가사	<b>35.4</b>	<b>36.3</b>	<b>36.7</b>	<b>37.2</b>	<b>36.8</b>	<b>36.6</b>	<b>36.1</b>	<b>35.1</b>	<b>35.8</b>	<b>35.8</b>	<b>34.8</b>	<b>36.5</b>
통학	<b>27.3</b>	<b>27.2</b>	<b>26.7</b>	<b>26.4</b>	<b>26.6</b>	<b>26.5</b>	<b>30.2</b>	<b>28.7</b>	<b>28.0</b>	<b>29.2</b>	<b>29.1</b>	<b>29.2</b>
정규교육기관통학	<u>25.3</u>	<u>25.0</u>	<u>24.7</u>	<u>24.7</u>	<u>25.1</u>	<u>24.9</u>	<u>28.8</u>	<u>27.0</u>	<u>26.5</u>	<u>27.2</u>	<u>27.4</u>	<u>27.9</u>
입시학원통학	0.5	0.5	0.5	0.5	0.3	0.4	0.6	0.8	0.7	0.8	0.8	0.5
취업목적 학원·기관통학	1.5	1.7	1.4	1.2	1.2	1.2	0.8	1.0	0.8	1.2	0.9	0.9
연로	10.2	10.6	10.3	11.1	11.4	12.1	8.4	7.9	7.9	7.2	7.6	7.6
심신장애	2.9	2.8	2.6	2.4	2.5	2.7	4.2	4.1	4.4	4.3	4.6	4.1
그외	<b>14.0</b>	<b>13.8</b>	<b>14.5</b>	<b>13.8</b>	<b>13.7</b>	<b>13.2</b>	<b>17.1</b>	<b>18.3</b>	<b>18.6</b>	<b>17.9</b>	<b>18.2</b>	<b>16.7</b>
취업준비	2.2	2.3	2.2	2.3	2.4	2.3	1.4	1.7	1.4	1.9	2.6	2.7
진학준비	0.9	1.1	1.1	0.9	0.8	0.7	0.9	0.6	0.8	0.8	0.6	0.5
군입대대기	0.3	0.3	0.4	0.4	0.4	0.4	0.5	0.5	0.6	0.6	0.5	0.7
쉬었음	<u>9.4</u>	<u>9.0</u>	<u>10.0</u>	<u>9.6</u>	<u>9.5</u>	<u>9.1</u>	<u>13.2</u>	<u>14.1</u>	<u>14.3</u>	<u>13.1</u>	<u>13.4</u>	<u>12.0</u>
기타 등	1.2	1.1	0.9	0.6	0.6	0.6	1.2	1.3	1.5	1.5	1.1	0.9

<부표 7> 연령별 쉬었음 비중

(단위 : %)

경활								노동패널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계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계	
쉬었음인구															
2009	29	268	190	199	334	456	1476	12	51	465	298	221	333	966	2,334
2010	24	251	166	195	333	450	1419	13	76	473	245	159	314	1,152	2,420
2011	33	276	183	210	361	537	1600	14	103	447	241	185	293	1,214	2,482
2012	36	282	192	219	348	471	1548	15	60	455	193	97	207	1,287	2,298
2013	33	285	195	219	350	457	1539	16	32	485	162	144	258	1,300	2,382
2014	33	246	170	180	338	481	1448	17	44	287	153	132	228	1,276	2,119
비경활 인구															
2009	3082	2395	2130	1715	1782	4595	15699	12	3,882	2,795	2,346	1,746	1,998	4,967	17,735
2010	3105	2347	2055	1699	1842	4794	15842	13	3,330	3,016	2,227	1,555	1,882	5,129	17,140
2011	3094	2296	2030	1676	1907	4950	15953	14	3,328	3,071	2,195	1,642	1,907	5,263	17,405
2012	3046	2315	1980	1693	1943	5105	16082	15	3,324	3,235	2,167	1,571	1,851	5,346	17,494
2013	3013	2411	1929	1692	1953	5225	16223	16	3,263	3,389	2,090	1,661	1,874	5,529	17,806
2014	2918	2330	1832	1617	1896	5384	15977	17	3,170	3,305	1,962	1,754	1,875	5,632	17,699
쉬었음비중								쉬었음비중							
2009	0.9	11.2	8.9	11.6	18.7	9.9	9.4	2009	1.3	<b>16.6</b>	12.7	12.6	16.7	19.4	13.2
2010	0.8	10.7	8.1	11.5	18.1	9.4	9.0	2010	2.3	<b>15.7</b>	11.0	10.2	16.7	22.4	14.1
2011	1.1	12.0	9.0	12.5	18.9	10.8	10.0	2011	3.1	<b>14.5</b>	11.0	11.3	15.4	23.1	14.3
2012	1.2	12.2	9.7	12.9	17.9	9.2	9.6	2012	1.8	<b>14.1</b>	8.9	6.2	11.2	24.1	13.1
2013	1.1	11.8	10.1	12.9	17.9	8.7	9.5	2013	1.0	<b>14.3</b>	7.8	8.7	13.8	23.5	13.4
2014	1.1	10.6	9.3	11.1	17.8	8.9	9.1	2014	1.4	<b>8.7</b>	7.8	7.5	12.2	22.6	12.0